

모심과살림연구소 기획 세미나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 찾기

일시: 2022년 6월 17일 오후 1시

장소: 한살림연합 지층 회의실

○ 세미나 일정

시간	내용	발제
1:00-1:10	여는 말	신명호(모심과살림연구소이사장)
	축하의 말	조완석(한살림연합 대표)
1부: 생명살림 돌아보기		(사회) 정규호(한살림연합)
1:10-1:25	생명담론 형성과정과 운동담론의 전환과정에 대한 시선	류하(한말마을)
1:25-1:40	한살림선언 이후 한국 생명운동의 전개	주요섭(밝은마을생명사상연구소)
1:40-1:55	생태전환의 관점에서 본 생명운동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1:55-2:10	한살림운동의 새로운 기획을 위하여	임채도(모심과살림연구소)
2:10-2:25	공동육아, 생명을 살리는 생활문화 공동체 운동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25-2:50	1부 질의 응답	전체
2부: 우리 시대의 생명담론과 생명운동		(사회) 흥덕화(충북대)
3:00-3:15	생명논의와 포스트휴머니즘의 접점	최명애(카리스트인류세연구센터)
3:15-3:30	새로운 생명담론과 운동의 이정표	신승철(생태적지혜연구소)
3:30-3:45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운동	김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3:45-4:00	공통장 운동으로서 생명운동의 전환전략	조미성(모심과살림연구소)
4:00-4:15	전환기 생명운동의 방향과 전략	정규호(한살림연합)
4:15-4:35	2부 질의 응답	전체
3부: 종합토론		(사회)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4:45-5:30	- 시대의 전환, 생명운동의 전환을 위하여 - 하반기 생명운동 포럼 기획을 위한 방향성과 핵심 키워드 도출	좌장: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패널: 참석자들 전체

1부

생명살림 돌아보기

- 생명담론의 형성과정과 운동담론의 전환 과정에 대한 시선 류하 3
- 한살림선언 이후 한국 생명운동의 전개 주요섭 15
- 생태전환의 관점에서 본 생명운동 구도완 24
- 한살림운동의 새로운 기획을 위하여 임채도 34
- 공동육아, 생명을 살리는 생활문화 공동체 운동 이경란 43

생명담론 형성과정과 운동담론의 전환과정에 대한 시선

류 하

(한알마을,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기획위원)

1. 생명운동 담론의 전환과 문명전환 담론

생명운동이 태동된지 40여 년¹⁾, 우리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근대문명으로 인한 각종 지구적 생명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생명위기를 불러온 서구근대문명의 폐해를 넘어 새로운 삶과 문명으로의 ‘문명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명전환의 외침과 당위성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있을 뿐, 문명전환을 향한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사회적 실천의 방안을 만들고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지식인들의 ‘문명전환’이니 ‘다시개벽’이니 하는 예언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구체성의 결여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문명전환’ 담론이 공감되고 공유되는 과정(process)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선각자적인 선언적 문제제기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문명전환 담론의 실천을 담보하는 집단의 부재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 생명운동의 시작지점에서 생명운동의 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구체적 실천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탐구는 새로운 생명운동으로의 전환-필자는 현 시기 이주제의 핵심은 ‘문명전환운동’으로의 담론전환이라고 생각한다-에 영감(靈感)을 줄 수 있다. 생명운동 40여년은 생명운동의 양적 성장도 이루고 다양한 영역의 생명운동으로 확장을 이루어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운동이 현실의 ‘전환적(변혁적)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생명운동이 제도화의 길을 거쳐 체제내화 되거나, 관성적 운동에 함몰되어 새로운 전환적 이슈를 제안하고 실천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1) 우리는 아직 생명운동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서술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생명사상과 생명운동사는 물론이거니와 현대적인 생명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세계관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통칭 ‘원주보고서’)이라는 문서 역시 1982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될 뿐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이러한 현실은 생명운동이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로운 담론과 새로운 운동으로의 전환이나 창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최근 생명운동 내외부에서 제기된 문명전환담론은 ‘생명운동과 생명담론’의 시대상황에 맞는 전환을 요청하는 메시지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현실의 문명전환 담론 또한 수많은 발화자에도 불구하고 ‘운동’으로도 ‘운동담론’으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1980년대 초반 생명담론의 출현과 기존사회운동에서 생명운동으로의 전환 과정을 검토해 보는 것은 역사적 조망을 떠나 현실의 과제를 조망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실의 ‘문명전환’ 담론의 ‘구체성의 결여’라는 문제와 선진적 집단의 공감과 공유의 부재 및 실천지평의 결여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갈지에 대해 성찰적인 시사를 받을 수 있다. 역사는 단순히 서술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갈 때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인간의식과 문명진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생명의 세계관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에서부터 『한살림선언』의 탄생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어떻게 문명전환 담론이 운동론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원주보고서’의 실체와 의미

1) 생명운동 담론 형성기의 문서

현대 생명운동의 시작과 기원에 대한 탐구는 그리 풍족한 편이 아니다. ‘한살림농산’(1986년)을 기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원주 한살림의 시작인 원주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1985년)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또한 김지하의 생명운동 담론집인 『남녘땅 뱃노래』에 실리고 이른바 ‘원주보고서’라 불리는 「삶의 새로운 이해와 협동적 삶의 실천」(1984년)을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삶의 새로운 이해와 협동적 삶의 실천」(이하 ‘실천’)은 1982년 하반기 원주에서 활동가들에 의해 완성되고 배포된 「생명의 세계관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1982년, 이하 ‘확장’)과 내용과 맥락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내용의 골간을 쓴 김지하가 칭한 ‘원주보고서’(실천)과 동일한 문서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두 문서를 비교 연구한 논문도 없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진술을 하는 사람이 없어 객관적 이해에 기반한 명칭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론

부터 말하면 ‘확장’과 ‘실천’의 관계는 ‘확장’이 먼저이고, ‘실천’이 뒤에 정리된 것의 관계이자 내용상 ‘실천’이 ‘확장’에 포함되는 관계이다. 이것은 생명운동 담론이 ‘확장’으로 태어나고 ‘실천’으로 대중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원주보고서’라고 한다. 다만 ‘원주보고서’가 지칭하는 바가 ‘확장’이 등장한 이후 ‘실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분명했다. 이점은 ‘실천’으로 할 경우 원주보고서의 작성자가 김지하로 한정되고 작성연도도 1984년으로 비추어진다. ‘확장’으로 할 경우 최초의 생명담론은 1982년, 혹은 1983년으로 앞당겨지고 담론의 작성자도 원주캠프 혹은 사회개발위원회의 집단작업결과로 볼 수도 있다. ‘원주보고서’ 이후 원주에서 시작된 생명운동은 동학을 비롯한 한반도의 생명사상과 서구생명·생태이론에 대한 탐구와 토론을 거쳐, ‘한살림 선언’으로 생명운동 담론의 역사적 지평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생명운동의 첫 시기에 해당하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89년 ‘한살림모임’의 설립과 『한살림선언』까지의 전개과정은 원주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 그룹의 철저한 성찰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생명운동의 주인공들은 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원주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집행해 왔던 서구적 근대화에 대한 주체적 저항과 협동적 창조 운동에 대해 성찰과 평가²⁾를 단행한다. 이 평가는 천주교 원주교구 사회개발위원회의 활동영역과 이른바 원주캠프³⁾라고 하는 사회운동영역을 오가며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사회개발위원회는 종교

2) “1970년대 원주에서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을 중심으로 김영주씨, 박재일씨, 이경국씨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분들과 제가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역의 농민과 광산 근로자를 중심으로 협동운동을 조직했던 일이 있습니다. 특히 협업운동과 신용협동조합운동에 힘을 많이 쏟았지요. 그러다가 저는 민청학련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1980년에 제가 출옥한 후, 그동안 추진해 오던 1970년대의 협동운동을 평가한 결과 신탁운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이념적 토대가 취약했던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명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분열시키고 죽이는 삶의 질서에 대항하며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는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한살림》 무크지, 『나락 한 알속의 우주』체서 재인용.(강조 필자)

3) 가톨릭 원주교구(교구장 지학순)와 장일순을 중심으로 한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의 활동가 그룹에 대한 지칭이나 공식용어는 아니다. ‘원주캠프’라는 명칭 역시 김지하에 의해 언급되었을 뿐 그들 스스로 내건 명칭도 사회적으로 공인된 명칭도 아니다. 구성원도 장일순과 재해대책사업위원회에 합류한 활동가들부터 다양한 공식 비공식적 참여인사까지 거론되나 분명한 것이 없다. 원주그룹은 60년대 중반 지학순주교의 부임과 장일순과의 만남이후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여, 70년대 민주화운동과 72년 남한강 대홍수 이후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과정 중에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및 공동체운동, 생명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했던 그룹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기관에 속한 공적기구로서 선교를 위한 사업이 주목적이고, 운동담론은 비공식적 내용에 해당하기에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다룰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 천주교를 우회하는 사회운동의 중심에는 군사독재와의 첨예한 대결구도로 인해 비공식적 활동들이 많았고, 그 중심에 장일순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일순은 1963년 출소 후 정치활동정화법과 사회안전법에 의해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김지하 역시 1980년 출소 후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나 국가권력의 감시범위 안에 있었다. 이것은 공식적 활동으로서 사회개발위원회의 활동과 비공식적 활동으로서의 통칭 ‘원주캠프’의 활동이 중첩되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적 조건을 설명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과 같은 문서가 처음에 사회개발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문서의 성격상 사회개발위원회나 가톨릭 원주교구의 공식문서가 되지 못하고 팜플렛⁴⁾ 형식으로 발간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생명의 세계관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확장’)이라는 생명운동 최초의 문서는 김지하가 초고를 작성하고 사회개발위원회 활동가들, 그리고 원주캠프에 소속된 주요 활동가들이 윤독하고 토론을 통해 첨삭했을 것으로 유추된다.⁵⁾ 그런데 1985년에 발간된 『남녘땅 뱃노래』에는 ‘원주보고서’라 불리는 「삶의 새로운 이해와 협동적 삶의 실천」(‘실천’)이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확장’의 내용보다 축소되어 1984년 7월에 쓰여진 것으로 하여 실려 있다.

2) ‘확장’과 ‘실천’의 관계

먼저 ‘확장’은 인쇄본이 아니라 타자본이라 각주가 하나의 장(章)으로 구성되

-
- 4) 7,80년대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던 시절 비공식적 혹은 비합법 사회운동 조직이 사회운동이론이나 정세분석 및 운동지침 등을 유포하기 위해 타자기로 작성된 문서로 복사를 통해 은밀히 유통되었다. 제작과 유통의 특성상 발행주체나 필자가 기록되지 않으며 약어와 은어등과 더불어 사회운동 고유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대체로 능력과 권위 있는 조직의 개인이 초고를 집필하지만 대체로 발행하는 집단의 중요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집단창작물에 가깝다. ‘확장’은 발행주체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필자가 가톨릭 원주교구에 당시 자료 중에 ‘확장’이라는 문서가 있는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문의하였으나 당시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확인 할 수 없다고 함.
 - 5) 실제 이 문서가 처음 드러난 것은 2009년이다. 사회개발위원회 활동가였던 김상범이 자신의 집 장롱을 정리하다 발견된 수첩부의 교정본과 함께 무위당 기념관에 제출되었으며, 김상범과 정인재는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1981년 가을인가에 김지하에 의해 초고가 작성되고 사회개발위원회의 활동가들과 장일순이 여러 차례 윤독하고 교정 및 첨삭을 했다고 구술.

어 총 4장6)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실천’은 장의 구분 없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새 세상을 위하여’라는 부제를 달고, ‘확장’의 <개요>를 하나의 글로 통 편집하며 각주를 하단에 배치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확장’의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만 ‘실천’에 편집된 것이다. 내용은 대동소이 하나 ‘확장’에는 성서 구절이나 성서의 ‘말씀’으로 표기된 문장이 대부분인데 ‘실천’에서는 ‘말’로 교정한 것이 더러 있다. 또한 ‘확장’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문장이 상당히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대거 삭제했다. 그리고 ‘확장’의 몇몇 문장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문장을 끼워 넣거나 기존 문장에 단어를 첨가한 것이 가끔 보인다. 또한 ‘확장’의 문단편집과는 달리 문맥에 맞게 새로이 문단화 한 곳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실천’이 김지하 본인의 글이라고 하는 만큼 ‘확장’의 <개요>와 <주해>의 초고는 김지하가 썼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만 ‘확장’의 <개요>에 이어지는 <본문>은 내용이 <개요>와 비슷해 김지하의 글로 유추되나 단언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각론>은 당시 원주캠프가 관여하고 있던 다양한 부문영역의 생명운동의 시선에서의 의미부여와 구체적 실천을 이야기 하고 있어 김지하의 개인의 글이라기보다는 원주캠프의 활동가들의 집단창작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인이 썼다고 해도 원주캠프의 활동에 대한 대표 집필적 성격이 강하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확장’의 문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유추 상상할 수 있다.

‘김지하의 출옥과 함께 박재일, 장일순 등과 생명운동으로의 전환이 공감 공유되었고, 사회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원주캠프의 다양한 영역과 부문에서 협동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활동가들의 자체 평가가 진행된다. 그 결과 신탁운동을 제외하고 여타의 운동에 대해 ‘실패’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새로운 운동으로의 전환이 결정된다. 새로운 운동은 ‘생명을 세계관’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동안 가톨릭에 의지해 전개되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며, 그것은 ‘원주’, ‘가톨릭 원주교구’, ‘농촌과 광산’등의 지역협동운동, ‘반독재민주화운동’ 등을 근본에서 뛰어넘는 전환운동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운동에 대한 활동가들과 선진적 의식의 민중들과 공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글이 필요

6) <1.개요 >, <2.본문 >, <3. 각주>, <4.각론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요>가 근대문명의 실상과 자본주의 사회주의에 대한비판, 생명·협동운동으로 전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본문>은 <개요>를 부연 설명하는 것에 가깝다. <각주>는 <개요>에 대한 각주이다. <본문>은 생명에 대한 특징을 <개요>에 기초해 설명하고 있다. <각론>은 각 영역에서 생명·협동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에 해당한다.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해졌다. 김지하가 초고를 쓴다. 사회개발위원회 활동가들과 장일순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첨삭하고 실천지침까지 만든다. 이 과정은 원주캠프 활동가들이 처음으로 생명운동에 눈뜨는 과정이자 생명사상으로 시선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세계관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생명운동 최초의 문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유추된다.

그 이후 1983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군사정권의 ‘유화국면’에 따라 생명담론과 사회운동으로서 생명운동의 대중화 작업이 진행되게 된다. 또한, 보다 열린 공간에서 생명운동담론이 생산 유포되고 그룹 내 논의도 활성화 되어갔다. 논의는 주로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김지하를 중심으로 한 담론⁷⁾의 생산과 유통이고 또 한 가지는 내부의식화와 실천방안⁸⁾을 도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생명론 탐구와 생명운동 세미나⁹⁾의 개최였다. ‘확장’이 생명사상과 운동의 대중용 담론집인 『남녘땅 뱃노래』에 「삶의 새로운 이해와 협동적 삶의 실천」으로 수정·편집되어 실리게 된 배경이다. 이로 보아 ‘원주보고서’로 지칭되는 문서는 ‘확장’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확장’의 특징과 의의

‘확장’은 현대 한국사회에 생명운동을 표방한 최초의 문서이다. 이 문서가

- 7) “김지하가 옥중에서 ‘선생님,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더군요. 그래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아 눈치 보면 알지요. 들어오는 쪽지도 그렇고....’ 하는 겁니다. ‘그래 바꿨다. 종전의 이데올로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선생님 저도 생명운동 아닙니까.’ ‘맞다. 그 방향으로 가야된다.’ ‘그렇게 하면대중들이 먹지 않을 텐데요.’ ‘안 먹어도 던져라. 너는 글재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밥>이니 <남>이니, 모든 게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한 거지. 그런 것은 생명운동의 시작이었던 말입니다” 『나락 한 알속의 우주』, 「겨레의 가능성은 대중속에」에서. 『밥』과 『남』은 1984년에, 『남녘땅 뱃노래』는 1985년에 출간되었다.
- 8) 1984년에 가톨릭 농민회원들을 비롯한 선진적 농민들이 일본에 유기농업과 생협을 돌아보는 연수를 다녀왔다. 1985년 6월 원주 소비자 협동조합이 창립을 한다. 박재일을 이사장으로 한 이 조합은 원주캠프가 농촌과 광산에 조직했던 전통적인 소비조합(생필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능)과 다르게 유통과 유기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이것은 1986년 서울에 한살림 농산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한 살림 운동이 시작되기 전 실험판이었다.
- 9) “우리는 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 그것이 또한 동학과 생명론이었다. 원주캠프는 겉으로 보아 전혀 다름이 없었고 사회개발위원회 활동도 여전했지만, 내실은 이미 그 중심이 바뀌어 버렸다. 차원 변화였다.” “천주교 원주교구엔 사회운동을 위한 교육센터가 있다.출옥 후 얼마 안 되었을 때 장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박재일 형과 내가 나서서 ‘생명사상세미나’를 기획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금 내 기억에는 개신교 쪽에서 아무개 목사와 황인성 아우, 나상기 아우, 그리고 가톨릭 쪽에서 정호경신부와 고 제정구씨 등이다.” 김지하 회고록 『흰 그들의 길 3』

비록 대중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던 활동가들을 위한 ‘팜플렛’으로 작성되어 의식화와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용도로 제작되었지만, 생명운동 1세대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최초의 문서라는 의미는 무시될 수 없다. 물론, 광주항쟁 직후의 어둡고 엄혹한 시절에 작성된 ‘팜플렛’형식에 담긴 문서이고 최초의 문서이다 보니, 기존 사회운동의 용어와 어법, 형식이 반영되어 투박하고 어두운 문장들이 많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운동의 최초문서가 아카데미한 글이 아니라 현장의 실천을 전제하는 ‘팜플렛’으로 쓰여 졌다는 것은 생명운동의 현실구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세계관’으로서 ‘생명의 세계관’을 제시한 것은 인간중심의 근대적 발전주의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던 당시 상황으로서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생명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이념적 논지에 비해 실천방안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대명제가 추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사회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일상이던 시대 상황과 이제 막 탄생된 생명운동 담론이라는 객관적 한계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한살림선언』에서는 도드라지지 않는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라는 단어가 40회(〈개요〉에만 7회) 정도 언급된다는 점이다. 특히 ‘죽음’¹⁰⁾이라는 단어가 66회 등장하는 것과 연동해 ‘부활’이라는 단어가 28회(〈개요〉에만 12회)등장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687회 등장하는데 이와 더불어 ‘협동’이라는 단어가 214회나 등장하는 것도 눈여겨 볼 일이다. 죽음이라는 단어의 반복적 등장은 근대문명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70년대 반유신독재운동과정에서의 희생과 광주항쟁 직후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근대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죽음의 성격을 드러내고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반면, 근대문명에 대응해 새로운 문명이 담아야 할 전략적 가치로서 ‘생명’과 ‘협동’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를 가톨릭적 영성과 연동하여 ‘부활’이라는 개념과 연동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한살림선언』에 오면 ‘영성’과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이를 대신해 쓰인 언어는 ‘우주생명’과 ‘각성(覺性)’이라고 생각된다. ‘영성’이 ‘우주생명에 대한 각성’으로 대체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10) ‘확장’의 첫 구절은 “죽음의 먹구름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로 시작하고 있다.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나는 ‘확장’이 천주교 원주교구 사회개발위원회의 내부문서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이를테면 문서 중간에 성서의 인용이라든지 지침에 해당하는 각론에 가톨릭의 영역에 해당되는 언어로 쓰여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김지하를 비롯한 원주캠프의 활동가들이 초기 생명운동의 인식을 가톨릭적 인식 위에서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그 이전이나 70년대에 영세를 받은 신자들이었고 원주교구의 사회개발위원회에서 급료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지하를 제외하고 대부분 타계하기 전까지 가톨릭신자로서 신앙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어찌되었든 ‘확장’이 가톨릭적 배경의 종교성(宗教性)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종교성이 곧바로 영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성은 개별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종교가 이르고자 하는 궁극성이자 그에 대한 경험 및 깨달음을 의미한다.¹¹⁾ 그렇다면 ‘확장’이 끊임없이 ‘영성’을 강조했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 『한살림선언』에서는 ‘영성’이란 용어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명운동에서는 영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등의 의문이 생기지만 다른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세 번째로 ‘확장’이라는 생명운동 첫 번째 담론은 집단창작물이라는 점이다. 사유의 시작은 1977년에 교도소 안의 김지하와 교도소 밖의 장일순과 박재일

11) 영성은 종교학자들도 정의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Daum) 위키백과의 영성정의를 기본으로 한다.(<https://ko.wikipedia.org/wiki/%EC%98%81%EC%84%B1>) “영성(靈性, Spirituality)은 이 낱말이 사용되고 있는 문맥에 따라 다음의 것들을 의미한다.

1. 궁극적 또는 비물질적 실재(實在, reality)
 2. 자신의 존재의 에센스(essence, 정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길(inner path)
 3. 의거하여 살아야 할 준칙으로서의 가장 깊은 가치들과 의미들
- 명상, 기도, 묵상 또는 관조(contemplation)를 포함한 영적 수행들(spiritual practices)은 각 개인 자신의 내적인 삶(inner life, 내적인 생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한다. 영성(靈性, Spirituality)을 믿고 이에 의거하여 실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영적 수행들은 바르게 수행되었을 때 그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경험들에 도달하게 한다고 여겨진다.
1. 더 커다란 실재와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을 통해 더 커다란 자아(自我, Self)에 이르는 것
 2. 다른 사람들 또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
 3. 자연이나 우주(cosmos)와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
 4. 신성(神性)의 영역(divine realm)과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
- 영성(靈性, Spirituality)은 종종 삶에서 영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원천인 것으로 경험되고 있다. 영성은 비물질적 실재들을 믿는 것이나 우주 또는 세상의 본래부터 내재하는 성품(immanent nature) 또는 초월적인 성품(transcendent nature)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각기 고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유가 시작되면 일상의 삶에서 언어와 행동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81년 12월, 75년 수여되었으나 감옥생활로 수상식이 미루어졌던, 김지하의 로터스상 수여식을 전후해 원주캠프 내 이야기들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¹²⁾. 그들이 주로 만나고 토론하는 상대는 대부분 삶과 운동경험을 공유하는 사회개발위원회 활동가들이었다. 이들과의 공사석(公私席)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을 것이고, 비슷한 경험아래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에 빠르게 흡수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생명운동으로의 전환이 논의되었고 김지하의 초고가 제출되었다. 이것을 함께 운동하거나 각자 읽고 와서는 장일순과 더불어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문서에 대한 첨삭과 논의 결과를 반영한 각론의 집필이 있었다. 원주캠프의 사회개발위원회 활동가들은 생명운동의 담론과 실천을 조직하는 최초 워킹그룹(working group)이었다. 이것은, 운동의 전환이 기존 운동의 에너지 고갈을 읽는 눈과 새로운 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워킹그룹의 역할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살림 선언』 발표 시기의 사회개발위원회와 같은 워킹그룹 기능은 김지하 최혜성 박재일 등이 주도한 ‘한살림 연구회’가 수행했다고 보여진다. 대체로 전환기 워킹그룹은 두 가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전환담론의 마련이었다. 원주캠프는 사회개발위원회를 통해 그동안의 운동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새로운 운동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김지하 장일순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담론화 작업을 진행한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실천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모색과 실천이다. 유기농업교육이라든지, 유기농업과 생협연수라든지, 유력한 활동가와 사회운동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공부와 교육을 시행함은 물론 원주소비자 협동조합 및 한 살림 농산과 같은 실험적 실천을 조직하는 것이다.¹³⁾

네 번째로 주요한 가치에 대한 서술로 ‘협동’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근대문명이 자본과 근대국가의 경쟁과 투쟁의 문명으로 이미 양차 세계대전과 한국

12) “나의 생명운동 제안은 사실상 그날의 원주가톨릭센터 이층 수상식장에서였다. 명시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내적 흐름은 그러했다. 그날을 전후해서 나는 장일순 선생님과 방향전환에 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그간 자호(自號)를 청강(淸江)에서 무위당(무위당)으로 바꾸어 쓰고 있었다.” 『흰 그들의 길 3』 41쪽

13) 생명론이 박재일 형에게서 유기농운동과 무공해농산물 수요라는 구체적인 안건을 끌고 나왔듯이, 최열 아우에게서는 생명론에 토대한 환경운동의 전개를 끌어내었고, 동학론은 장 선생님에게서 어릴 적 친구인 오창세 선생에 대한 기억을 강하게 끌고 나왔다. 우리는 생명과 동학이라는 새로운 기준위에서 동학과 서학, 생명론과 변혁론, 구조모순과 환경오염문제의 보합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흰 그들의 길 3』 44쪽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전쟁을 겪은 가운데 또다시 가공할 핵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대변한다. 또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경쟁과 투쟁이 격화되고 그 결과 서로 죽임의 문명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주캠프에서 그동안 실천해왔던 ‘협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탈근대적인 가치로 재창조해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협동’은 근대적인 가치와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사회적 약자들의 사업조직으로 제시된 서구 협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생명에 적대적인 삶과 이를 강요하는 문명을 뛰어넘어 생명으로의 중심이동과 생명 관계의 근본을 인간중심주의를 뛰어넘어 못 생명의 공생에 두는 ‘협동적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뒤에 ‘한 살림’ 사상으로 총화되었다고 보여진다.

생명운동담론은 1982년 ‘확장’에서 시작하여 1989년 『한살림선언』에서 1차적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본다. 그 이후의 과정은 김지하와 한살림을 중심으로 한 생명담론의 진화와 종교계와 사회운동 영역에서의 독자적인 생명담론의 개발과 운동으로의 전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명운동담론의 확산과정이자 다양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 영역으로의 확대는 녹색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귀농운동이나 유기농업운동, 한살림 외의 생협 및 직거래운동, 공동체운동, 생명문화운동, 환경운동 지역공동체운동 등이 이에 해당하고, 종교 영역으로는 불교환경연대나 인드라마, 정토회, 생명평화결사 등의 불교생명평화운동, 다양한 기독교 생명공동체운동, 원불교 생명운동, 가톨릭 생명운동 등으로의 확산과정이다. 이에 대한 상세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3. ‘원주보고서’를 통한 성찰과 문명전환기 활동

생명운동은 서구중심의 근대 산업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자는 운동이다. 지금 세계는 근대 산업문명의 풍요를 즐긴 여파로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여전히 핵무기는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 보유국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쟁과 폭력이 인류사 전체적으로 볼 때 줄어가고 있다¹⁴⁾ 하지만 21세기에든 세계는 분쟁과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공지능(AI)시대를 열고 있으며,

14) 『우리본성의 선한 천사』, 스티븐 핑커, 김영남 역, 사이언스북스, 2014.

생물과학 분야에서는 사람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의 유전자 지도를 파악하고 유전자 가위 편집기술이라는 가공할 기술로 생명을 조작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살림을 비롯한 생명운동은 82년 ‘확장’이 처음 쓰여졌을 때와 비교해 양과 질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과 확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운동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현실의 생명운동이 근대문명을 넘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거나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운동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는 목소리들도 많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생명운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선배그룹이 생명운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신들이 했던 일을 냉정히 평가하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한 살림 뿐만 아니라 생명운동 전반에 대한 문명전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연찬’하며 문명전환의 실천방향을 모색하는 ‘마당’이 필요하다. 혹자는 근대문명의 수명이 거의 다했다고도 하고,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의 시대가 왔다고도 하고, 동학의 개벽론을 환기하며 ‘다시 개벽’이 오고 있다고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글과 서적들이 선언적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 ‘문명전환’이라는 말은 많이 회자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문명전환 담론’의 주창이 운동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구자적 개인의 이야기인데다, 전환기에 걸맞는 운동론과, 전환의 프로세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특정 개인들을 극복하고 신뢰할 만한 연구와 실천을 조직할 집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명운동 단체들도 자기 단체의 생존에 매달려 위기를 인식할 뿐 문명전환을 ‘생명운동’이라는 시선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확장’에서 『한살림 선언』까지 과정을 주도했던 워킹그룹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장일순이나 김지하 박재일과 같은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던 점도 주목할 일이지만, 긴 시간 동안 동일한 문제인식을 끌고 가는 집단의 힘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진정으로 ‘문명전환’이든 ‘다시개벽’이든 생명운동의 새로운 버전업(Version Up)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문명전환시기 생명운동의 과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조직하고 그들의 활동을 고무,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불러올 변화의 핵심을 파악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간 의식의 진화 방향을 가늠해보아야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문명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국가와 자본의 결합이 주도하는 문명이라면, 이후의 문명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민(民)의 생명 인식과 결합하고, 사람의 공동체성과 결합하고, 인간 의식의 진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공동체문명을 창조하면서, 새로운 삶과 사람의 등장하는, 문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새로운 문명의 주인으로서 민(民)이 설 수 있도록 각성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명전환워킹그룹은 생명운동의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과 문명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인물들이 참여하여, 문명전환기 생명운동의 장 단기적 과제를 설정하고, 연구하고, 토론해 결과를 생명운동진영에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상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4. 마무리

‘원주보고서’라 칭해지는 문서는 「생명의 세계관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 문서를 필두로 하여 한살림선언까지 생명운동 담론 형성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약 10년여의 시간을 장일순, 김영주, 김지하, 박재일, 최혜성 등을 비롯한 원주캠프의 활동가들이 치열한 문제의식과 공부 및 토론을 통해 담론을 형성해 갔던 것이다. 그래서 생명운동은 이념도 있고 실천도 있었고, 창조적 확장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집단의 창조적 작업 과정이다. 홀로 고립된 혹은 탁월한 개인의 사유와 작업이 아니라 원주캠프라는 집단의 창조적 성찰과 작업이었기에 가능했다. 다중지성 혹은 집단지성에 근접하는 것이다. 물론 글의 초안은 김지하가 썼지만 이 글에는 김지하 외에도 장일순, 박재일을 비롯한 원주캠프와 인연을 맺고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실천과 성찰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려난 생각과 경험이 창조적으로 들어있다. 이것은 당시 한국 사회에 동전의 앞뒷면처럼 자본주의적 근대화와 사회주의적 근대화 두 담론이 경쟁과 투쟁을 하던 시기에 한반도 고유의 사상인 동학에 근거해 생명사상을 펼쳐가는 과정이며 문명에 대한 전환운동(다시개벽운동)의 시작이었다.

이제 다시 문명전환과 다시 개벽을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한 지 오래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문명전환담론과 실천담론을 만들 것인가? 자문하게 된다.

한살림선언 이후 한국 생명운동의 전개

- '다시-보기'와 몇 가지 문제의식 및 기대들

주요섭

((사)밝은마을 생명사상연구소)

1. 다시보기

1) '돌아보기'와 '다시보기'

무슨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할 때마다, 흔히 '돌아보기/내다보기'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는 생명운동이 태동의 초창기부터 문제 삼았던 선형적 시간관, 직선적 시간관을 전제하고 있었다. 과거/미래 구별이라는 하나의 시간관임을 간과하고 있었다.(요새 나의 관심사는 '시간'이다.)

수행에서는 '다시-보기'를 강조한다. 이때 다시-보기는 다르게 보기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의 개념을 빌면, '재-기술', 즉 '다시-쓰기'다. 다시-보기는 다시-쓰기의 전제조건이 된다.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입지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모든 보기는 다시-보기인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자각적인' 다시-보기이다.

생명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돌아보기 안에 이미 내다보기가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노안이 되어, 기억력이 쇠해져, 잘 보이지도 않는다. 돌아보기도 내다보기도 마찬가지다.(^^). 다시-보기는 내 관찰능력과 관점, 상태 등이 반영된 또 다른 보기이다. 다시-보기는 항상 현재적 다시-보기일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과거의 기억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기대나 소망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른 시공간의 좌표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본다.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2) 생명운동 없다

슬쩍 다시-본 생명운동은 일단 ‘관찰 불가’이다. 생명운동 관련단체들, 한살림도 안 보이고, 생명평화결사도 인드라마생명공동체도 보이지 않는다. 생명운동은 소멸했는가? 혹은 생명운동 하는 이는 누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루만을 따라서, 사회운동체계와 조직체계를 구분한다면, 생명의 조직활동은 있으나, 생명의 사회운동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생산체계로서의 생명운동은 잘 보이지 않는다.

3) 생명운동은 전유되었다

우리가 아는 생명운동은 없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운동 행위자들은 목격된다. 검색엔진들이나, 미디어들을 통해 관찰되고 소통되는 생명운동은 미국 극우파의 프로-라이프(pro-life)운동에 뿌리를 둔 낙태반대운동, 동성애반대운동, 그리고, 가톨릭, 기독교 등에서 나름 오랜 역사를 가진 자살방지운동 등이다. (특히 보수기독교의 동성반대운동은 차별금지법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양성평등은 인정하나 양성 이외의 성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생명운동이라고 지칭한다. 생명운동은 그들에 의해 전유되었다.

2. 한살림선언 이후 한국 생명운동의 전개: 연대기적 관찰

한살림선언 이후, 한살림이 생활협동운동에 전념하는 동안, 1990년대 시민사회운동과 환경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아울러 생명운동, 혹은 생명평화운동도 탁발순례와 새만금 삼보일배 등으로 표상되듯이 주요한 사회운동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말까지 가히 절정기라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우선 주목되어야 할 한 사람이 있다.

1) 생명운동의 단기필마 김지하

한살림선언이 발표된 1년 후, 1990년 8월 김지하가 ‘개벽과 생명운동’이라는

주제의 긴 강연을 한다. 생활협동운동과 구분되는 생명문화운동으로서의 생명운동을 강조하며, 한살림선언에 버금가는 강령적 비전을 제시한다. 김지하의 사회운동적 야심을 드러난다.

기억을 떠올려보면, 혹은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한살림 외에 (당시로서는 한살림보다 더) 생명운동 확산의 촉매 역할은 거의 김지하의 몫이었다. 『대설 남(南)』이나 『밥』, 『남녘땅 뱃노래』, 『사상기행』, 『애린』 등 다양한 형식의 저작과 강연들, 그리고 <생명민회> 등 직접적인 조직화를 통해 단기필마로 생명운동, 아닌 생명-투쟁을 전개한다. 물론, 결정적인 것은 1991년 5월 ‘죽음의 굿판’ 필화 사건이었다. 죽음의 굿판 칼럼은 전통적 사회운동, 진보운동과의 결별을 의미했지만, 역설적으로, 생명사상, 생명운동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그리고 김지하는 시인이자 사상가로서 여러 저서를 통해 생명사상을 심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형태로 생명문화운동을 펼쳐나간다.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생명민회>, <신평류회의>, <삼남 네트워크>, <울려학회>, <생명과 평화의 길> 등을 발족하여 활동하기도 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생명문화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생명담론을 집대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여성 정치학자이자, 에코 페미니즘 모임을 이끌었던 **문순홍과의 만남**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사건이었다.

2) 생명운동의 다양한 모습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생명’ 그 자체가 존재 이유인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운동이 크게 확산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생명사상, 생명운동은 이미 중요한 사회적 흐름 중 하나가 되었다. 불교계의 인드라마새생명공동체, 생명평화결사, 기독교계의 YMCA와 YWCA, 그리고 환경연합과 녹색연합 등 유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령적 목표와 자신의 사명을 ‘생명평화’로 설정한다. 생명운동은 생명공동체운동, 생명살림운동, 생명평화운동 등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세상과 만나고 소통하고, 또 자극한다. 조직의 창립과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연대기적으로 살펴본다.

-1989년 법륜스님과 <정토회>가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1년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후, <불교환경교육원> 창립하고 다양한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진행한다.

- 1990년 8월 김지하 시인의 수운회관 강연. ‘개벽과 생명운동’을 통해 생명문화운동의 비전과 전망으로 선언적으로 발표.
- 1991년 <가톨릭농민회>가 생명공동체운동을 선언하고, 이후 <우리밀살리기(1991)>, <흙살림(1991)>, <우리농촌살리기(1994)> 등 다양한 농업·농촌 생명운동이 전개된다.
- 1991년 <녹색평론>이 “생명의 문화 복원”을 천명하며 창간된다. 생명운동과는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후 한국의 급진적 생태담론의 대표 매체로 성장한다.
- 1994년 <생명민회>가 발족되어 ‘자치’와 ‘민회’를 중심으로 생명정치 가능성 탐색한다.
- 1996년 <귀농운동본부>가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 삶”을 기치로 창립된다. ‘귀농’이 사회적 시민권을 얻게 되고 대중적인 귀농귀촌운동의 중심이 된다.
- 1999년 도법스님이 중심이 되어 <인드라마생명공동체>가 창립된다. 불교적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운동, 귀농운동, 대안교육운동을 동시에 전개한다.
- 2000년 <기독교환경연대>가 창립된다.
- 2000년 <불교환경연대>가 창립된다.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지울스님이 중심이 되어 고속철도 터널반대 운동을 전개한다.
- 그리고, 2003년 <생명평화결사>
- 2003 새만금 삼보일배
- 2003-2006 세계생명문화포럼
- 2004-2008 생명평화탁발순례
- 2008년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창립
- 2010 4대강 살리기 오체투지
- 2012 생명평화대행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23번째 자살을 계기로 ‘모두가 하늘이다’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사회, 민중운동 등 참여.
- 2012-2020 강정생명평화센터(2007년 반대투쟁 시작)
- 2018 새마을운동중앙회 생명살림운동 전개

3) ‘생명평화’로의 확장과 ‘거룩한 사회운동’

이 과정에서 김지하와 한살림 중심의 생명담론과 생명운동은 생명평화담론과 생명평화운동으로 확장된다. 여기에는 지리산과 실상사, 도법스님과 수경스님 등 불교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2001년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남북 양측 민초들의 해원(解冤)을 위해 마련된 '생명평화 민족화해 평화통일 지리산천일기도'를 계기로 '생명'과 '평화'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후 2002년 2차 북한 핵 사태를 계기로 <지리산생명평화결사>의 창립(2003년)으로 이어지고, 2004년 3월부터 도법스님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온 세상의 생명평화를 기원하며 전국의 농촌과 도시를 탐방하는 <생명평화탁발순례>가 시작된다. 5년 동안 이어진 순례를 계기로 '생명평화'는 사회적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된다.

한편 생명평화탁발순례가 시작되기 1년 전인 2003년 3월 25일에서 5월 31일까지 불교의 수경스님과 가톨릭의 문규현 신부가 중심이 되어 전북 서해안의 대규모 간척사업 저지를 위해 '삼보일배(三步一拜)'가 진행되었다. 삼보일배는 한국 사회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대사건이었다. "환경에서 생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선언되고, 운동방식에 있어서도 간디의 비폭력 투쟁에 비견되는 '거룩한 사회운동'의 모델이 만들어졌다.

바야흐로 생명평화운동은 전 종교계와 시민사회로 확장(擴張)되고 확산(擴散)된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들이 생명평화 강령 채택하고, YMCA와 YWCA가 각각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평화운동과 생명정의운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제 '생명살림', '생명평화'는 기독교, 가톨릭, 불교 등 종교사회운동의 공통 언어가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4대강 개조 반대운동, 쌍용차 파업노동자 농성 등 시민사회운동 현장 곳곳에서 생명살림과 생명평화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그리고 2012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준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시민교육 교재로 '생명평화세상만들기'를 제작하게 된다. 이제 '생명평화'는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가 된 것처럼 보인다.

3. 생명운동 20년(1990년~2010년)을 보는 눈

루만의 관점에서 사회운동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없을 때 실패한다. 언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론, 정치, 경제 등 다른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스템에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사회운동이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사회운동의 의사소통을 재생산할 힘을 잃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1990년~2010년까지 생명운동은 고도성장기이면서 동시에 절정기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고속성장은 침체로 귀결되었다.

1) 생명운동의 절정기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대서부터 2010년까지 20여년은 생명(평화)운동의 절정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생태, 생명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청년들과 새로운 활동가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교육프로그램과 녹색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만들어졌다. 언론에서 주목하고, 다른 사회운동 영역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치열했고, 거룩했고, 뜨거웠다.

2) 그늘 속의 생명(평화)운동들과 또 다른 풀뿌리 생명운동들의 출현

앞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 들어 이른바 생명운동, 생명평화운동으로 전개되던 사회적 활동은 가시권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보기도 한다. 또 다른 흐름들이 있다. 개인화되고 주변화 된 청년들, 여성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생명운동들이 관찰된다. 이는 한살림이나 생명평화결사 등 기존 생명운동 조직의 주변, 그늘에서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예컨대 해남의 김단의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절정기에 성장한 활동가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지구마음컴퍼니'라는 회사형식의 운동조직을 만들어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풀뿌리 환경운동이 눈에 띈다. 나와 근접거리에 있는, 전북, 전남 등에서 귀촌해 정착한 '언니들'(김단의 표현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눈에 띈다. 또 다른 풀뿌리운동들이다.(25년 전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생명민회)'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지식인들이 꿈꾸었던.)

3) 그리고, 하나의 결론

루만에 따르면, 사회운동은 조직체계와 다르게 '결정'들이 아니라, '동기', '헌신', '구속감'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은 구성원에 한정된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는 기계’, ‘감각하는 기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묻고 메타버스 시대의 생명운동을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 나에게 생명운동은 무엇보다, 일차적으로 생명의 실존이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고통이다.

생명운동의 태동기, 그때도 역시 생명은 위기였다. 배고픔이든 감옥이든 신체적이었다. 오늘날, 생명 위기의 성격이 달라졌다. 생태적으로뿐만 아니다. 그러나 그 신체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배고픔과 감옥은 아니지만, 고통은 고통이다. MZ세대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형식은 물론 40년 전과 다르다. 심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역시 신체적이다. 그들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기후우울증 이상이다. 생명-운동이 변화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보다 그 고통의 양상이 변화했기 때문 아닐까. 부처님의 말씀대로, 괴로움/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형식이 변화할 뿐이다.

2) 포스트 생명운동일까? 생명운동2.0일까?

자기생산체계로서의 생명운동이 부재하고, 아니 전유되고 있고, 또한 사회운동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면, 생명운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조직적 활동, 개인적 활동, 인터넷을 통한 활동으로 세분화되고 있고, 오히려 그 하나하나가 주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생명운동은 어떻게 될까?

3) 생명-운동(활동) 활성화의 선행 조건들

나의 관점에서 핵심은 ‘생명의 세계관 재-설정’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서 진리가 아니라, 신령한 내러티브로서의 또 다른 생명 이야기들이다 밥이야기, 한살림이야기, 우주이야기(토마스 베리), 미륵불교 이야기, 천국 이야기(성서)를 재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름하여, ‘신령한 이야기’ 함께 만들기. ‘감응적 서사의 공-산’이다.

- 인식론적 허들넘기¹⁾. 인식은 세계를 절단한다. 그러나 그것은 삶-사회의

1) 앞에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필자는 몇 개의 물음표를 던지면서 인식론적 허들넘기를 제안한 바 있다. 그 물음표들을 소개하면 이렇다. 1)저항적 생명감각의 상실 2)객관주의 사고, 3)유기체-개체적 생명 이미지 4)실체적 사고 5)주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2장 5절). 그리고 2장 보론에 또 다른 생명의 세계관 설정의 전제조건이 기술되어 있다.

- 조건, 생명운동의 조건이다. 역설이다. 이에 대한 통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 역설적 생명사유 연습.(자기를 변화시켜야 자기를 보존한다.)
 - 감응적 생명사유 연습.(내가 귀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농촌(생명)이 나를 불렀다.)
 - 담론적 실천에 대한 새로운 관점. ‘비판’, ‘대안’, ‘자기-기술’, 그리고 ‘감응적 이야기’
 - 새로운 활동형식으로서의 ‘예감과 가정법적 실험’
 - 현실적 필요: ① 허무주의와의 전투 ② 재난시대의 라이프라인 만들기(생존 투쟁시대 대비)
 - 그리고, ‘공간의 생명운동’에서 ‘시간의 생명운동’으로의 전환. 생장소멸하고 생로병사 하는 우리의 실존적 필요를 위해서도, 진보/보수 구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탈-성장, 즉 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또 다른 시간관은 생명-운동의 핵심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간관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김지하, 생명과 평화의 길: 276)
 - 새로운 주체성, 생명 주체성 연구. 에이전시/페이션시 개념을 참조하여.
 - 기계와 함께 살기. 새로운 존재형식(체계)으로서의 기계. 기계와의 소통. 인간성의 재-발명.

4) 신령한 이야기 함께 만들기.

이렇게하면 감응적 서사는 함께 만들어져 한다. (물론 개인 차원의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신령한 이야기는 함께 만드는 대하소설이다. 거기에는 상상력과 허구만이 아니라, 감각할 수 있는 어떤 떨림과 울림이 있다. 그 안에는 그늘이 있고, 감응이 있고, 주체성과 놀이와 기승전결, 역설이 있다. SF영화처럼 외계인이 있고, 귀인(貴人)과 함께 귀물(貴物)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개벽의 꿈’이 있다.

2) “바로 이 시간이 긴 동서문명사, 특히 현대에 있어서 인류의 거짓된 삶, 목적론, 선적인 시간, 미래주의, 순환적 상고주의, 자동 기계의 유토피아, 속도 생산에 의한 공산주의 낙원, 엔트로피최대 증대점에서 지구 물질의 붕괴와 함께 그로부터 분리된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의 거대한 하나의 꽃인 지구 영권(地球靈圈, noosphere, 떼이야르 샤르맹의 비전)의 상승이라는 과학적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김지하, 생명과 평화의 길)

생태전환의 관점에서 본 생명운동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

1. 생명의 위기

1982년에는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세상에 나왔고,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80년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변혁적 시기를 지나고 2년 만에 우리나라 생명운동과 시민 환경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두 사건이 일어났다.¹⁾ 많은 사람들이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을 때 그 너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운동가들은 생명의 위기 혹은 공해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생명과 민중을 억압하는 체제와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글을 쓰고 조직을 만들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22년 우리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그리고 인류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회운동가들은 이런 위기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생명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태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좁은 의미의 생명운동은 한국에서 1970년대 형성되기 시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문명, 문화, 생활 전환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장일순, 김지하, 박재일, 최혜성, 김영주 등의 ‘원주 캠프’가 이 운동을 주도했고 이 운동은 이후 한살림운동으로 발전했다. 넓은 의미의 생명운동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을 포괄한다. 생명문화운동, 생명평화운동, 생명협동운동, 공동체운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생태적 대안운동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지구 관점에 서서 생명을 살리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지속가능성 전환, 녹색 전환, 생태전환

전환은 다른 상태나 방향으로 바뀌거나 바꾸는 것을 말한다. 변형, 변혁 등으로도 번역되는 transformation, 그리고 이행으로도 번역되는 transition 모두 우리말로 전환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전자가 형태나 방향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의미한다(박순열, 2021)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담론들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지속가능성 전환(sustainability transition)은 지속가능 발전 개념에서 유래한 개념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 기술, 사회, 경제 및 정치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과 이론은 사회-기술 접근, 사회-생태 접근, 사회-제도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김민재 외, 2018: 11).

최병두 등은 한국 사회와 국가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기획을 2020년에 발표했다. 여기서 최병두는 ‘녹색전환이란 인류세의 도래와 이에 함의된 지구적 생태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지구환경과 인간 사회의 기존 경향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최병두 외, 2020: 42).

지속가능성 전환의 주창자들은 기술, 생태, 제도 등 초점은 다르지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용한 자원들을 동일하여 변화를 조직하고 관리하여 안정적인 체제로 이행하는 데 관심을 집중한다. 이들은 지속불가능한 체계의 구조적 원인과 그것의 근본적인 변형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최병두는 인류세의 문제의식을 강조하며 지구 관점에서 전면적인 구조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재)숲과나눔에서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포럼 생명자유공동체는 창립 선언문에서 “모든 생명의 존재론적 위험에 민감한 사회, 차별과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모든 생명의 자유를 위한 전환, 배타적 독점과 권위를 넘어서 모든 생명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이 포럼의 첫 번째 단행본에서 나는 생태전환(ecological transformation)을 제안하며 이를 “산업/자본/국가/인류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모든 생명이 자유로운 지구라는 이상을 향해 가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구조 변형과정”이라고 정의했다(구도완, 2020a: 7, 42). 현대의 사회구조가 인류, 국민, 자본, 지배계급 등을 목적으로 대하고 비

인간존재, 비국민, 비자본, 피지배계급, 지구를 수단으로 여기는 구조이고, 이 구조가 현대 생태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²⁾

3. 생태민주, 생태평화, 생태발전

생태전환은 민주주의, 평화, 발전을 생태적으로 재구성하여 생명이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 평화, 발전은 인류-산업-자본-국가 중심의 지배구조 안에서 평등, 정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담론이었다. 민주주의는 불평등한 사회를 좀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 정치체제이자 담론이다. 평화 담론은 개인과 공동체 뿐만 아니라 국민 국가를 넘어서서 폭력을 줄이고 정의를 확장하는 실천을 이끄는 데 기여했다. 발전 담론은 가난, 궁핍, 부자유로부터 벗어나 풍요, 부, 자유를 확장하는 기호로 작용했다. 민주 공화국들이 사람들의 발전을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안과 국가 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류-산업-자본-국가 중심 지배구조의 이상 가운데 하나였다.³⁾

그런데 인류세와 지구의 관점에서 이런 담론들을 보면 그것들이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지 의심스러워진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체제이지만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의 생명과 자유를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폭력을 줄여나가면서 정의를 확장하는 과정으로서 평화는 지구와 비인간존재를 배제하고는 실현되기 어렵다. 더 나은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발전은 인류-산업-자본-국가 중심 모델을 벗어나 새롭게 생태적으로 재구성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태민주, 생태평화, 생태발전의 이념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태전환을 이루는 정치적, 경제적 프로그램은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
- 2) 산업주의는 대규모 기계공업을 바탕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경제성장을 유지, 재생산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인간과 비인간자연 등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상품으로 전환하여 이윤을 위해 거래하는 제도이다. 국가주의는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를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 강제력을 독점하며 사람들에게 국민의 정체성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체제를 말한다. 인류 중심주의(anthropocentrism)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와 권리를 갖고 비인간존재는 인간을 위한 도구적 가치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가치관과 이에 바탕을 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3)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 반대하면서 국가를 넘어서기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인류-산업-자본-국가 중심의 지배구조에 묶여버린 것으로 보인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길들이면서 '문제해결'에 관심을 집중했다.

민주, 평화, 발전이라는 가치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첫째, 생태민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생태 위기가 기후 위기의 모습으로 다가오자 민주주의의 한계와 작동 불능 때문에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에 관심을 돌리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⁴⁾ 안드레아스 말름은 기후위기는 전시 상황과 마찬가지로 긴급한 대응을 요청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생태적 전시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주장한다(말름, 2021).⁵⁾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든, 지구공학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자주 들린다. 낡은 구조가 흔들릴 때 좌와 우를 막론하고 ‘생존’을 위해 비상한 ‘예외 상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어날 것이다. 헌법 규칙을 재규정해야 할 예외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권력을 위로부터 장악하여 ‘기후위기로부터의 생존’을 절대 원칙으로 삼아 지배구조를 부수는 데 자원을 집중한다면 파국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생태위기는 짧게는 수십 년 길게 보면 수천 년의 우연적 사건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구조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 그 경로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해결을 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생태민주는 이러한 문제를 성찰하며 민주주의를 해체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정치를 말한다.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 대의, 의회, 입헌, 다수결 등 근대의 정치 문법을 넘어서는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독단과 독재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생태민주의 정치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생명을 살리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 성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생태평화란 생명과 생태의 관점에서 평화 담론을 성찰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수, 대중,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은 민중이 스스로를 지배하는 체제 즉 자치의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런데 평화는 지배를 넘어서는 상태, 즉 지배가 필요 없는 적극적 자유의 상태라 할 수 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말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잠재적 적으로서 다른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소극적 평화 즉 지배체제 온존의 다른 표현이다.

4) 민주주의가 생태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다 (하일브로너, 1988)

5) 말름은 민주적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그의 생태 전시 커뮤니티에는 권위주의적 절대 권력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그런데 적극적 평화 즉 비폭력적 방법에 의한 자유와 정의의 확장이 비인간 존재에 대한 폭력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정의롭지도 지탱가능하지도 않다. 지구를 도구적 가치로 평가하고 비인간 존재를 수단으로 대하는 정치, 경제 체계는 기후위기와 인류세 시대에 지탱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인류, 국민국가 중심으로 설계된 평화 프로그램은 지구 차원에서 비인간 존재를 중요한 행위자로 초대하는 생태 평화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인간 중심의 발전 모델은 생태적 지속가능성 안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발전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GDP라는 경제 지표의 양적 성장, 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확대를 목표로 작동하는 현대 자본주의와 산업주의 체제에서는 인간 개발 또는 발전(human development)이 지배적 가치이다. 인류세 시대에는 인간 발전을 넘어서서 지구 생명과 공존하며 인간이 자유를 실현하는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성장, 정상상태(steady-state)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녹색 경제, 사회적경제 등의 담론을 정교화하고 생태적으로 변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전환의 전략

인간과 생명,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지배구조를 어떤 방법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지배적인 사회구조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유형 분류로는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오늘날 인류가 함께 번영하지 못하고 불평등의 덫에 걸려 있는 구조적 원인을 자본주의라고 보고 반자본주의 전략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라이트, 2020: 96; Wright, 2019: 56).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현대의 생태위기의 구조적인 원인은 자본주의로 환원할 수 없다. 인류중심주의, 산업주의, 국가주의가 자본주의와 함께 기능하며 생태적으로 지탱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아래 <표 1>은 라이트의 반자본주의 전략의 유형들을 변형하여 생태전환 전략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먼저 라이트의 분류에 따라, 전환의 목표를 폐해 중화하기와 구조 넘어서기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운동이 전환 대상으로 하는 사회제도의 수준에 따라 게임 자체를 바꾸는 운동,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운

동, 게임 안에서의 움직임 바꾸는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다섯 가지 전환 전략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전략 A ‘부수고 새로 만들기’는 위로부터 국가 또는 지배구조를 부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전략이다. 전략 B ‘길들이기’는 지배구조가 지구와 생명을 더 위태롭게 만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개량하는 전략을 말한다. 전략 C ‘해체하고 새로 만들기’는 생명이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대안적인 정치, 경제, 사회체계를 만들어가는 전략이다. 전략 C ‘해체하고 새로 만들기’는 전략 A와 달리 지배구조를 부수지 않고 그 형식과 내용, 작동방식을 바꾸는 전략이다. 전략 D ‘저항하기’는 틈새의 사건, 사고, 이슈 등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에 저항하며 생명, 생활, 자연을 방어하는 전략이다. 전략 E ‘새로 만들기’는 지배구조 안에서 이를 넘어서는 틈새의 실험을 조직하여 생태 전환의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전략이다.⁶⁾ 이 유형 분류에 따라 5절에서 한국의 환경운동과 생명운동 또는 생태적 대안운동의 전략을 살펴보겠다.

<표 1> 생태전환 전략의 유형

		전환 목표	
		폐해 중화하기	구조 넘어서기
사회제도 수준	게임 자체		부수고 새로 만들기 A
	게임의 규칙	길들이기 B	해체하고 새로 만들기 C
	게임 안에서의 움직임	저항하기 D	새로 만들기 E

5. 전환 운동으로서 생명운동

생태전환의 관점에서 생명운동 또는 생태적 대안운동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한살림운동, 생명평화결사, 『녹색평론』, 성미산 사례 등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1970년대 장일순, 박재일, 김영주 등 ‘원주캠프’의 협동운동은 사람들이 스스로 협동의 주체가 되어 소비자 협동조합, 신용 협동조합 등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힘을 불어넣은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980년대 한살림운동으로 발전했다. 한살림 생협 조합원, 활동가, 생산자들

6) 생태위기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전략들은 다양해지고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은 서로 교류하며 살림의 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경험했다. 이들은 한살림 운동을 하면서 살림의 주체로 자신과 집단을 재구성했다.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을 넘어서 생태 발전을 할 수 있는 집합적 경험이 축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003년에는 생명평화결사가 창립했는데 이들은 생명평화 서약문에서 이렇게 말했다(구도완, 2020b).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평화가 되어야 함을 압니다. (중략) 생명평화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 모든 생명, 모든 존재 사이의 대립과 갈등, 억압과 차별을 씻어내고,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정하게 어울려 사는 길이며, 저마다 생명의 기운을 가득 채워 스스로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평화결사는 ‘세상의 평화’와 ‘내 마음의 평화’가 둘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평화, 남북한의 평화, ‘우리’ 안의 평화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우리 사회에서 생태전환은 김종철과 『녹색평론』을 빼고 말하기 어렵다. 『녹색평론』은 근대문명을 해체하고 생태문명을 만들기 위해 소농중심의 사회, 공생공락, 지역화폐, 녹색당, 녹색 정치, 기본소득 등의 이슈를 우리 사회에 던졌고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왔다. 녹색평론의 독자들은 2012년 녹색당이 창당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육아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보자고 모인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공동체 사람들은 지배구조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실험을 했다. 이들의 틈새 실험 이야기는 소통되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고 박원순 시정에서 마을 만들기 정책이라는 또 다른 실험으로 접합되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생명을 살리는 정치체제로 바꾸고 평화를 모든 생명의 평화로 확장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명을 살리는 경제를 새롭게 만드는 실험이 지난 40여 년 간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다.

환경운동과 생명운동 또는 생태적 대안운동을 전환 전략의 유형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1980년대 급진적 공해추방운동조직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공해의 주된 구조적 원인이라고 보고 전략 A를 지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그 전략의 주창자들은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시민환경운동 조직들 가운데 일부는 전략 D를 지렛대로 삼아 전략 C를 실현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략 B에 자원을 집중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생명과 자연의 보전을 운동의 주된 목표라 삼고 지배구조가 낳는 폐해를 중화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집중했다. 많은 시민환경운동 조직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배구조 또는 개발국가에 저항하면서 즉 전략 D를 실행하면서 정부와의 정책 협의, 거버넌스 등에 참여하며 전략 B에 머물렀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부에 들어가 전략 B를 추진했고 이와 함께 시민환경운동의 전략 D도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시민 환경운동은 우리 사회의 환경오염을 줄이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배구조를 넘어서기보다는 폐해를 줄이고 중화하는 데 머물렀다.

초기 생명운동의 주창자들은 유럽 녹색당 등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문명 전환과 정치 체제 전환을 함께 추구했는데, 이들은 전략 C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한살림 선언, 『녹색 평론』 등은 자본주의, 산업주의 혹은 산업문명, 인류중심주의, 그리고 국가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생명, 생태, 협동, 공동체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을 지향했다. 한살림 생협은 이런 목표를 갖고 생활협동 운동을 조직하면서 전략 E를 통해 대안적인 생활 문화와 협동의 공동체를 새로 만드는 일에 자원을 집중했다. 성미산 사례도 전략 E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생명운동가들은 기계, 산업문명이라는 구조를 벗어나서 생명의 문명을 만드는 구조전환 운동을 지속해왔다. 이들은 지배구조 부수고 새로 만들기(전략 A), 지배구조에 저항하기 (전략 D)가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구조를 낳는 문명을 바꾸기 위해 생활양식을 바꾸고, 협동을 조직하고, ‘나’를 바꾸는 각성을 촉구했다. 한국 생명협동운동의 특성은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의 협동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주의 또는 경제민주주의 지향의 협동조합과 달리 ‘생명’에 관심을 집중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나와 남을 나누는 ‘우리끼리’의 협동을 넘어서 ‘모두’, ‘모든 생명’을 살리는 협동, ‘영성’ 등이 핵심적인 담론이다.

생명운동의 주된 활동은 협동조합 등 협동운동으로 나타났다. 국가나 자본, 산업문명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협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실험을 했다. 이러한 실험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경제 공동체를 만들 정도로 발전했으나 구조를 넘어서는 대안이 아니라 구조의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보완재로서 기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기계문명에서 벗어나는 이상을 꿈꿨으나 생명의 공동체를 모두에게로 확장하는 전환 과정을 실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해체하여 새로운 기본규칙을 만드는 일은 점차 멀어지고 게임 안에서 ‘우리’끼리의 협동, 우리들의 생존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인류세 시대 생명운동의 미래

생명운동 또는 생태적 대안운동은 지배구조를 해체하며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실험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공업을 발전시키고 자본을 축적하여 인간(국민)이 잘 사는 국가를 만든다는 이상을 의문시하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전환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했다. 이러한 실험들은 이곳저곳에서 전환의 씨앗이 되고 꽃이 되고 작은 숲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도 적지 않았다. 죽임의 문명과 생명의 문명, 기계 문명과 살림의 문명을 양분하고 생명의 신비로운 속성이나 ‘우리 민족’을 특권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만을 메타관찰의 주체로 보고 타인을 훈육, 각성,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생명’의 이름으로 독단을 정당화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독단과 우유부단을 넘어 소통하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비상한 통찰과 협력이 필요하다. 기계와 생명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본, 인류중심주의에 묶여 있는 기계 또는 과학과 기술을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생태전환의 경로 또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명이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기획하고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배구조 안에서 생명 자유 공동체의 울타리, 협동의 토대 만들기: 국가와 자본, 가부장제 안에서 다른 교환, 다른 상호작용, 다른 정보의 공동체 만들기
- 생명 자유 공동체의 영향력을 사회, 국가, 자본에 스며들게 하기
- 다른 정치, 다른 구조를 설계,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 인간들의 거버넌스, 의회, 공화국을 넘어 생명들의 의회(Assembly of

Lives), 생명들의 공화국(Republic of Lives), 생명들의 코스모폴리탄주의 상상하기

이런 과정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혼종적으로 진퇴를 거듭하며 이루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를 벗어나 좀 더 멋진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삶을 즐기고, 사랑과 자유를 누리면서 협동과 선물의 힘을 모두에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생명 자유 공동체가 스스로 지탱가능하게 느슨한 울타리를 만들면서 생태 평화, 생태 민주, 생태 발전의 주체로 성장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인류-산업-자본-국가의 지배구조는 오랫동안 지속되겠지만 자연과 함께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발전하는 공동체가 늘어난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 구도완. 2020a. “생명, 자유, 공동체를 위하여”. 구도완 외. 『생명 자유 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질문』. 도서출판 풀씨.
- _____. 2020b. “생태”. 김성철, 이찬수 편.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민재 외. 2018. “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정책평가: ‘공유도시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2(2).
- 라이트, 에릭 올린. 2020. 『21세기를 살아가는 반자본주의자를 위한 안내서』. 이매진. Erik Olin Wright. 2019. How to Be an Anti-capitalist in the 21st Century. Verso: London.
- 박순열. 2021. ““모든 생명이 자유로운 공동체’를 위한 전환의 질문, 질문의 전환”. 구도완 외. 『전환의 질문, 질문의 전환』. 도서출판 풀씨.
- 말름. 2021.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마농지.
- 최병두 외. 2020. 『녹색전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치와 전략』. 한울 아카데미.
- 하일브로너, 로버트. 1988. 『인간에게 미래는 있는가』. 문예출판사.

한살림운동의 새로운 기획을 위하여

임채도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1. 현실에 대한 단상

이 글은 현재 한살림의 상황을 운동과 사업환경, 소통구조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획을 상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살림 운동의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 운동의 어려운 상황은 운동가치의 형식화, 조직과 리더십의 불안정, 조합원 참여의 퇴조 현상으로 압축된다.

한살림의 운동가치는 조합원과 실무자, 활동가들 모두가 공유하는 신념이자 활동의 토대가 되는 믿음의 체계라 할 것인데 생명, 신뢰, 공동체, 사람, 밥 등이 기본 가치를 이루고 있다. 또 그 하위의 가치 실행체계로는 생소하나, 사업과 운동의 결합이라는 한살림운동의 원칙들이 있다. 우리 운동이 '제도화'의 단계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운동가치와 현실의 불일치, 간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생명의 가치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확장되지 않는 모습이나 세상의 밥이 되자는 구호가 한살림의 '폐쇄성'이라는 외부의 지적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 등이 그것이다. '생소하나'(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 역시 과거와 같은 '얼굴있는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해관계를 넘은 친밀성이 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집합행동 이론에 따르면 이는 규모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살림의 '운동성'과 '정당성' 내지 결사체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또 현재 조직과 리더십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인데, 우선 외양적 측면에서 보면 85만의 조합원, 23개의 회원생협이라는 방대한 조직과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아래로부터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다는 협동조합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측면을 들 수 있다. 임기제 대의체계에 따른 2년 내지 4년 단위의 리더십 교체, 조직 전

반의 세대교체 흐름도 현재 조직과 리더십의 불안정을 심화하는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조직 전반의 세대교체 흐름은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미 2018년 한살림 전국조합원 실태와 의식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30,40대 조합원과 50,60대 조합원 층위의 구분선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후쿠이생협의 저성장 사례를 보면, 당시 30대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5%대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한살림의 경우도 30대 조합원의 이탈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1.5 내지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대 중층간부들이 최근 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향후 5년 이내 이러한 추세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활동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조직활동가에서 30,40대 초반의 비중은 매우 낮다. 전체적으로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조합원 리더십, 실무 리더십의 공백을 대비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30여 년간의 양적 규모 성장이 조직내부의 분화 및 상층의 고도의 합의체계를 형성하는 조직적 성숙과 단련으로 이어지기보다, 한살림이라는 강한 통합적 상징체계 아래 하위의 각 조직단위가 기능적으로 분할된 역할 수행에 머물면서 전체적으로 조직은 ‘관리형’의 특성을 띠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관리형 조직은 평상시, 혹은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를 관리할 때는 크게 문제점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새로운 사업과 운동의 환경에서 기민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혹은 소위 저성장 국면에서는 ‘적응과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조합원 참여의 퇴조 현상은 단순히 과거의 기준으로만 파악할 문제가 아니다. 물품이용과 조직활동 참여의 경로나 방식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생동적 참여와 소통이 부진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한살림이 조합원을 대하는 ‘계몽적’ 관점, 가르치려는 태도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과 직거래라는 한살림의 방법은 특이성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전이다. 한살림이 지금도 많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에게 응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신뢰성’에 있고 그 신뢰성은 엄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산기준과 물품기준, 농업문제에 대한 호소력, 「한살림선언」과 창업자들의 세계관과 철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기준, 물품기준은 기후환경, 기술적·경제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적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농정실패에서 보듯이 농업문제 자체가 과거와 같은 파괴력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조합원들의 참여 활성화는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한살림보다 시장의 견인력이 우세해져가는 상황에서 조합원 참여 활성화는 결국 조합원의 눈높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직과 리더십의 불안정과 조합원 참여의 퇴조 현상이 맞물리면 한살림 조직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근년에 이르러 지역 회원생협들은 매년 총회 때 마다 대의원과 임원 선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 참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조직내부 갈등으로 드러난 많은 사례는 조직에 대한 공통 이해 부족, 폐쇄적 소통구조, 공식적/비공식적 인간관계의 혼선 등이 문제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일부 지역 회원생협의 경우, 조직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비추어지지만 이는 그야말로 현상일 뿐이고 문제의 본질적 면을 보자면 내부 민주주의의 미성숙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둘째, 물품을 둘러싼 사업과 생산환경은 그 범위가 넓고 분석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본격적인 분석과 진단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할 것인가, 좀더 나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주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살림 사업과 생산에서 최우선과제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친환경농업 생산의 지속성, 안정성을 지키고 넓혀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소비의 확대로 이어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생산영역에서 보자면 생산주체의 고령화와 후계문제, 노동력 확보, 농지보전 대책이 우선과제이고 기후위기에 따른 생산의 불안정 요인을 파악해서 재배적지, 생산출하기준, 탄소배출 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다음과제, 그리고 약정 배정체계 정비와 생산공동체 강화, 생산 집산화(단지화), 생산기술과 관리체계의 현대화, 전산화 등이 당면 과제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생산영역의 과제들은 생산자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소비자들의 참여와 공동 실천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농업문제는 이제 농업-먹거리 통합 대응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소비자 조합원과의 생소협약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생산관리회의 등 한살림 생소 협의체계와 그 내용, 실행 상의 현실적 문제들과 개선점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도 있다. 특히 생소 협의체에서 실무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요구사항들과 접점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토론의 안내, 매개 역할을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생소협동이 회의구조에만 함몰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상호 방문, 일손 지원 등 실천적인 생소운동으로 만들어 형식화, 의례화 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비영역에서는 ‘소비확대’가 주관심사이나, 그 수단으로서 일회성 기획행사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단기적으로 조합원 가입행사, 물품기획전 등도 의미가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소비확대는 소비자조합원의 이용편의성 증대와 함께 생산과정과 물품의 신뢰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전달이 주효하다는 것이 기존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관한 연구의 공통된 결과이다. 이에 근거하면 한살림의 경우, 과정 중심의 참여인증제도와 농업살림 등 한살림운동의 사회적가치와 같은 핵심 콘텐츠들을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한살림의 물류 혁신, D-2 배송체계 구축도 소비확대에 긍정적일 수 있는데 조합원 접근성을 높이는 매장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살림의 소통은 내부 소통과 외부와의 소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내부의 공식적 의사소통은 형식상 각종 공식 회의체 구조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내용면에서 실무진들 사이에서 조정된 안건들이 주로 토의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소통구조의 아래에서는 소통의 분절화가 특징으로 포착된다. 즉, 사업단위와 운동단위, 생산단위와 소비단위, 실무단위와 의결단위, 연합과 지역 간 소통이 해당 단위의 경계를 넘어 종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합/사업연합의 실무 구조도 마찬가지다. 각 본부별로 종적으로 수렴된 의견들이 실무총책임자(전무이사)에게 집중되는 구조인데, 본부 내지 업무의제별로 실무부서간 횡적 연계논의 구조는 취약한 편이다. 연합 내 본부별로 분절된 소통구조는 연합 업무의 특성과도 부합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물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토의할 때 사업 물류의 capability나 소재지, 재정투자 측면 외 생산자의 의견, 실무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나 환경영향 평가, 햇빛발전과 탄소절감 대책 등 다면적 평가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이는 향후 물류혁신의 전체 추진동력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러한 횡적 논의구조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몇몇 TF구성으로 이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상설 실무부서의 고유 기능이거나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부서간 협업체계가 담당해야 할 영역까지 TF를 구성하다보니 해당 실무부서가 무력감에 빠지고 기획경험을 쌓을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점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지역 회원생협의 실무부서와 연합 실무본부와의 연계, 광역단위 내 회원생협 간 실무자 교류와 소통 등 한살림 전국 실무조직의 각 층위, 부문, 사업영역별 횡적 소통구조를 활성화하는 것은 전체 조직의 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연수원 건립 문제의 경우도 기부채납 방식, 독자 건립 방식 등을 놓고 최종 결정과정에서 일정한 혼선이 발생하면서 결국 몇 가지 회의론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현 상황에 고착하게 되었다. 건립방식의 선택 이전에, 여기에도 내부 소통의 분절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건립방식과 예산의 문제에 봉착하기 전,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과 현실성, 개별 지역생협의 참여조건, 이후 운영과 활용 대책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조직의 각 단위별로 토론을 조직한 후 의견을 취합하고 합의하는 정교한 과정을 조직화하지 못한 측면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한살림은 외부 시민사회와의 소통에서 흔히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한살림 스스로도 여기에 강하게 부정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살림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생협전국연합회’, 농업단체 연대, 국제연대 등에서 그렇게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들을 이유가 딱히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해당 연대 운동에서 한살림은 외부의 연대 요청을 함부로 거부한 경우도 거의 없거니와 오히려 재정 부담, 집회나 서명 참여 등 실행영역에서는 비슷한 다른 생협보다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외부 시민사회와의 소통에서 이러한 평가는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수동적 자세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진영내부에서는 참여와 불참, 제한적 참여 등 다양한 부류가 있었는데 한살림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살림에서도 내부 토론과 합의가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자기 입장을 명료히 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본다. 설사 그 입장을 공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부의 공식적 합의와 명료한 입장은 필요하다.

2. 30여 년 전의 기획

「한살림 30년 비전제안 보고서」(2017)는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협협동운동’과 생명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생명문화운동’ 두 축으로 한살림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이후 생협협동운동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과 활동들이 전개됨”이라고 지난 30년의 한살림운동을 총괄했다.

그러나 초창기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살림의 30년 전 기획은 두 가지 경로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위 ‘종합적’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포괄적인 디자인으로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새로운 생명문화운동을 제창한 것(김지하,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 1981)이었다. 이 변혁적 기획은 생명의 시대정신에 대한 총론(본문)과 농민, 어민, 도시빈민과 비공식부문, 노동자, 광산노동자, 여성, 청소년, 지식인과 종교인, 연대운동, 민족통일 등 10개 분야에 걸친 각론으로 구성된 담론이었다. 이 기획은 이후 한살림모임으로 계승되고 「한살림선언」(1989)으로 정식화되었다.

두 번째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나게 하고 친한 사이가 되도록 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이가 되는 일을 하고자”(박재일,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1987)했던 실천적, 현실적 기획이었다.

사실 초기 한살림의 이 두 가지 기획은 인적으로나 이후 운동의 전개과정을 보더라도 분리하기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생명협동운동과 생명문화운동의 두 축”이 하나의 현실적 구성체로 결합하는 과정을 당연시하거나 마치 어느 순간 갑자기 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후 실천과정에서도 無매개적, 기계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낳을 수 있어 약간의 무리를 무릅쓰더라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 김지하와 한살림모임의 ‘담론적, 연역적’ 기획과 박재일의 ‘실천적, 귀납적’ 기획은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하나로 수렴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진행된 논리와 실천의 전개과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박재일은 1987년 위의 인용구를 언급한 이후 (한살림운동 17년이 경과한) 2003년 무렵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라는 글에서 “처음엔 어떻게 하면 농산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비가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라고 밝히고 이후 “한살림운동은 밥상차림 운동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밥상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살림과 농업살림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운동을 생명살림운동으로 변화시켜 가고자 노력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김지하의 경우도 1981년 위 ‘월주보고서’ 이후 1990년경 한 강연(『개벽과 생명운동』, 2003)에서 한살림 현실운동의 두 가지 위험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중산층 중심의 가족 이기주의, 개량주의 운동으로 머물 가능성이었고, 둘째는 ‘에코 비즈니스’ 혹은 ‘환경산업’으로 인한 유기농운동의 파탄 가능성이었다.

한살림농산에서 직거래를 시작하고 협동조합이라는 구체적인 조직 실천이 없었다면 생명운동은 80,90년대 사회변혁논쟁의 한 자리에 머물고 말았을 것이다. 반대로 생명운동의 창조적 담론이 없었다면 한살림운동은 두 가지 위험과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아래로부터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 밥상과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살림의 가치를 발견해 나아갔던 경로와 다른 한편 생명의 시대정신과 세계관으로부터 새로운 생활양식, 실천양식의 창조로 나아간 경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한살림의 담론과 실천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어느 하나가 결여되거나 지체되었을 때 오늘날과 같은 한살림운동은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참고로, 김지하가 위 두 가지 위험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하자면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서 생명의 세계관에 대한 각성운동, 생명의 중요성과 그 총체성, 통일성에 대한 각성운동, 하나의 문화운동이 나타나야 하고 이것이 생활운동과 결합되거나 병행되거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김지하, 위의 글, 2003)

3. 30년 후를 위한 기획

지난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생명협동운동과 생명문화운동의 두 축”에 토

대한 소위 ‘종합적’ 생명운동은 일견 먹거리 생산과 생활운동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축의 종합은 기계적 결합으로 이해하기보다 역사적으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실천양식’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느 시기에 도 두 축의 완벽한 균형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당면 과제의 시급성이나 자원의 배분 순위에 따라 선택적, 가변적일 수 있다. 한살림은 두 바퀴 중 하나가 결여되거나 지체되었을 때 이를 성찰하고 다시금 균형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힘을 발휘한바 있다. 2002년 모심과살림연구소의 창립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살림의 30년 후를 위한 기획은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가치 중심으로 한살림운동의 통합성, 종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한살림은 ‘협동조합’으로서의 형식적 요소 외에 그 자체가 ‘사회적 공유지 (commons)’로서 사회적가치를 실천하는 조직이다. 농업 농민문제 해결과 식량주권의 실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밥 운동), 생명 존중의 실천을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낮게는 생명문화운동을 별도의 실천영역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공간에서 저마다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류센터에서, 생협 사무실에서, 공급 차량내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청년세대를 생명문화운동의 중심, 주체로 과감하게 맡기고 지원해야 한다. 크게는 한살림의 사회적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명운동,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한살림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 중심의 의제설정이 필요하다. 분화와 통합은 조직과 운동에서 자연사적 과정이다. 분화만으로 전체가 설 수 없고, 통합만으로는 부분이 살 수 없다. 문제는 양적 규모의 성장을 질적 밀도의 심화로 이어내는 것이다. 양적 분화는 질적 통합으로 완결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살림에서 지역과 부문의 문제도 그러하다.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지원 등 부문 간 분화는 필연적이나 이에 대한 구심의 견인력, 밀도 있는 통합 여부에 따라 성패가 나누어질 것이다. 분화할 부분은 철저히 분화하고, 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단호히 통합해 나가도록 꾸준히 설득하고 합의해 나가야 한다. 한살림 광역협의체는 분화로 나아가는 초입이므로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하여 지역의 자활과 공생, 협업을 도모해야 한다. 연합은 지역문제가 논의되고 광(지)역의제가 소통되는 플랫폼으로 그 기능이 점차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사람중심의 교육 훈련체계는 조직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끝이다. 현 단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계에서 한살림의 모든 자원과 지혜를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조직은 사람에 기초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질이 조직의 질을 결정한다고 본다면 한살림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배려와 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실무 교육 외에 정책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 조합원/실무자/활동가 성장 프로그램, 공동체 교육, 인문교양 등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와 전문화에 힘을 쏟기 위해서 교육관할 부서의 일원화 내지 본부급으로 신설 통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2년 현재 약 85만 명의 조합원 중 월 3회 이상 이용 조합원이 약 20%, 월 1회 이상 이용 조합원이 30~4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나,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본다. 한살림 조합원이 1,500세대 정도였을 때도 꾸준히 이용하는 조합원은 10%정도였다고 하며(박재일, 위의 글, 2003), 경제학자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더라도 한살림에서 20%의 선도적 조합원의 역할은 충분히 수궁할 수 있다. 조합원의 열정과 참여만큼 든든한 한살림 밑천은 없다고 할 때 우리의 미래 30년을 위한 노력도 조합원을 향해, 사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하다.

공동육아, 생명을 살리는 생활문화 공동체운동

이경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

1. 생명운동과 공동육아운동

(1) 1990년대 사회운동의 전환 : 1990년대, 사회 각 분야에서 ‘생명의 세계관’ 또는 생태적 삶에 대한 관심이 회오리처럼 일어났다. 특히 생명 가치를 가장 크게 느끼는 먹거리와 육아 영역이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어린이문화운동과 보육운동 등이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생활협동조합운동과 공동육아운동은 그 대표적인 활동이며, 현재까지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생명 가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주요한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

(2) 보육운동 : 1980-1990년대 빈민지역운동이 일어난 곳에서는 탁아소와 공부방이 설치되었다. 그 가운데 공동육아의 전신인 어린이걱정모임은 영유아부터 시작이 같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해송보육학교’와 그 교사들이 운영하는 해송유아원, 해송아기둥지 등을 설립했다. 각 지역의 탁아소들이 연대하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지탁연)이 만들어졌고, 보육의 문제는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은 이런 운동의 성과였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은 ‘엄마’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부모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결핍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아이들을 돌볼 집단적 시설을 늘리고 가능하면 많은 아이들을 일괄적인 교육시스템 속에서 ‘돌봄’을 한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3) 공동육아운동 : 1991년 어린이걱정모임은 영유아보육법 체제를 비판하며, 아동과 가족의 현실을 분석하고 ‘공동육아’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이들은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이 시대는 어느 가족도 아이들을 온전하게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니, 사회와 공동체가 아이들을 함께 키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온전하게 펼치며 성장하려면,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조건과 공동체적 관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 빈민층을 위한 평등한 초기사회화라는 지향에서 계급통합적인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보육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1994년 이런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를 함께 키우는 부모와 교사의 공동운영체로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첫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이 1994년 서울에서 설립되었다. 그 후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초등돌봄의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약 30년이 지난 현재 공동육아에는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유치원·초등방과후,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민간어린이집, 품앗이 돌봄공동체 등 다양한 아동돌봄기관의 유형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 모두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그 운영원리로 운영한다. 물론 전체 어린이집의 0.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동육아는 아동돌봄기관들이 지향하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2. 아이 : 살면서 배우고 놀면서 자란다

(1) 가장 약한 존재인 ‘아동’의 삶에 주목하다 : 공동육아운동은 ‘아이’라는 가장 약한 존재의 삶에 주목하는 운동이다. 1970년대 가난한 아이들의 삶을 걱정하고 평등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살리고자 하는 운동에서 시작했고, 그것을 보편적인 아동의 행복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확장했다. 공동육아운동의 핵심은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아이들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육아의 목표는 아이들의 변화하는 요구와 요구에 맞추어 기존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그 이해에 더하여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계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이기범, 1994)

(2) 총체적인 삶을 경험한다 : 근대의 합리적, 과학적 사고는 서로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의 삶의 세계를 급속도로 분리, 단절시키면서 서로를 서로에게서 소외시켜 왔다. 유아교육 영역은 아이들에게 이 사회의 주류적 질서를 더욱 명확한 형태로 재생산한다. 줄서기, 남녀를 나누는 놀이, 연령에

다른 구별과 서열, 아동과 교사의 위계, 아동의 의사결정 배제, 시간표에 따른 생활 등 미세한 영역까지 차별과 배제의 논리와 근대적 사회질서의 틀과 생활 양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몸에 배게 하고 있다. 공동육아는 세상의 어느 것 하나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총체적(holistic)이고 관계론적인 관점에서 삶을 이해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경계를 넘어 삶의 총체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고 본다.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기와 저기, 아동과 성인, 남자와 여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세대와 세대 등과 같이 분리된 개념들 사이의 관계성을 재인식하고 이러한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보다 폭넓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을 지향한다.

아이들은 가정, 어린이집, 이웃, 지역사회라는 중층적 생활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하며 접하는 생활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받아들인다. 공동육아 아이들은 교실만이 아니라 흙과 물과 바람과 햇빛을 만날 수 있도록 안과 밖을 넘나들어 살며, 고립된 어린이집에서 갇혀 살지 않고 자연으로 마을로 나간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연령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배운다. 스스로 참여하며 생생한 경험을 통해 삶을 배운다. 삶의 모든 순간은 배움으로 가득하며, 그 배움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간에 상호적으로 일어나고 공동체가 속한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공간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난다. 그러므로 공동육아는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며,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아이, 부모 및 양육자, 교사 등)을 교육의 주체로 본다.

(3)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태적 삶을 살자 : 공동육아는 아이들은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 사는 시간과 경험을 최대한 갖도록 노력한다. 실내공간만이 아니라 바깥 공간에서 놀며, 매일 바깥 나들이를 하며 동네의 작은 자연과 만난다. 매일의 나들이는 계절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생명들과 공간과 사람들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고 가는 길에 만나는 동네 사람들, 경로당과 동네 가게들 방문하며 만나기, 좀 멀리 있는 더 큰 자연과 만나며 생태적 감수성을 확장해간다. 특히 텃밭 활동과 먹을거리, 요리와 음식문화, 세시절기와 같은 일상 활동(세시절기에 다른 한해살이)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개별적 자아를 넘어선 생태적 자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4) 모든 것은 놀이다 : 아이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험하며 만들어가면서 삶을 확장하는 데 놀이만큼 좋은 것은 없다. 교사의 명료한 계획과 의도보다는 아이의 자발적 흥미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중심의 체계적 학습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다양하게 탐색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이끈다. 즉 교육으로 아이들을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주체로서 교육과정의 주체가 된다.

(5) 평등하게 관계하다 : 한 사람 한 사람 존재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역량을 함께 기른다. 별칭을 사용하고 평어를 써서 아이가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고, 어른과 아이의 위계를 없애면서도 배려한다. 아이들도 일상의 갈등을 겪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모둠(회의)을 한다. 여기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키고, 그것을 수정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타인의 목소리를 함께 하는 삶의 방식을 익혀간다. 이렇게 아이들은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배운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숙달된 어른들이 아이들의 파트너가 되어 아이들을 안내하고 참여를 이끌어 주기도 한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는 어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동의, 협상, 승복, 유보 등을 학습하며 관계를 맺고, 협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체험한다.

(6) 어린이행복선언 : 2012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요청하는 [어린이행복선언]을 선포했다.

[어린이행복선언(2012)]

1. 마음껏 신나게 놀고 나면 행복해요. 놀 곳과 놀 시간을 주세요.
2. 포근하게 안아주면 행복해요. 많이 많이 안아 주세요.
3. 하늘을 보고 꽃을 보면 행복해요. 자연과 더불어 살게 해 주세요.
4.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해요. 좋은 먹을 거리를 주세요.
5. 책을 읽어 줄 때 행복해요.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세요.
6. 어른들이 기다려 줄 때 행복해요. 잘 못하고 느려도 기다려 주세요.
7. 제 말을 귀담아줄 때 행복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8. 제 힘으로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해요. 저 혼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9. 어른들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모두 함께 행복하게 해 주세요.

10. 다른 아이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행복하게 해주세요.

3. 어른 : 참여하는 민주적 공동체에서 살다

(1) 협동조합의 원리를 적용하는 민주적 공동체 운영원리 : 공동육아는 협동조합의 조직운영원리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공간이다. 총회와 이사회, 소위원회 등의 협동조합 조직들과 운영위원회, 교사회와 부모회, 방모임 등의 아동돌봄기관 조직에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주의를 경험한다. 양육자들은 아마 활동을 하며 아이들의 생활을 잘 알게 되고, 방모임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운영위원으로 기관의 운영을, 이사로 협동조합의 운영을 책임진다.

공동육아 의사결정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합의제이다. 다수결보다는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모두의 참여는 그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성원들의 인식의 편차와 차이는 늘 발생한다.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언제나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고, 운영에 익숙해진 구성원들은 떠난다. 개별적인 공동체와 공동육아 전체의 합의 사이의 간극 등 차이와 갈등의 요소들이 참여라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공동육아는 이를 평화적이고 모두가 주체로 참여하며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이다.

(2) 달라지는 부모의 삶 : 공동육아는 참여를 통해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부모는 부모라는 하나의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는 여러 정체성으로 변이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을 밟는다. 공동육아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은 부모들이 다른 부모, 이념, 가치, 실천 등을 마주하며 '되어가는' 과정이며, 마주침의 대상과 함께 변화하며 생성하는 '부모되기' 과정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부모가 성장하는 곳이라고 한다. 내 아이의 부모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 나아가 '사회적 부모'로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나 이 세상에서 함께 커가야 할 아이들(북한, 탈북을 포함한 남의 아이들)까지 모든 아이들을 시야에 넣으며 성장해 간다.

가장 큰 공동육아 부모들의 변화는 퇴근 후의 삶이 변하는 것이다. 직장을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부모들끼리 어울리고 만나면서 아이를 중심으로 한 이웃 관계망을 중심으로 삶의 방식을 바뀌어 간다. 퇴근 후 직장 술자리가 줄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동네사람들과 만난다. 바쁠 때 서로 아이를 돌봐주고 주말에는 함께 캠핑을 가며, 아이를 돌보는 역량을 키우고 서로 믿는 관계를 맺는다.

(3) ‘다른’ 교사의 삶 : 공동육아 교사는 교사이자, 공동육아 운동가, 생활인, 직원조합원, 직장인이라는 다중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 교사 또한 ‘공동육아 교사되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한다. 10년에 걸친 현장학교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이나 생활과 다른 공동육아를 이해하고 함께 토론했으며 어떻게 살아갈지 모색하는 필수과정이다. 거기에 개별 터전의 교사회 회의와 학습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모들과 논의하고 갈등하고 방향을 모색한다. 거기에 600여명의 교사들의 조직인 공동육아교사회에서 여는 교사대회와 총회에서 함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자기 현장에서 일어난 교육활동을 서로 나눈다.

동시에 공동육아 교사들은 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그와 같은 위치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이자 노동자이다. 매년 열리는 노동조건개선위원회는 조합과 교사가 함께 현 상황에서 교사들의 처우와 복지와 휴식을 어떤 수준으로 정할지 결정하는 자리이다.

(4) 변화하는 유기체로서의 아동돌봄기관 :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생물처럼 마을 환경, 마을의 사람들, 그 자체의 터전, 매개체로의 터전 등 다양한 영향을 받아 달라진다. 이런 여러 영향을 통해 변화해가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이며, 항상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유기체로 태어나, 자라고, 소멸하고,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기범, 2007) 그래서 같은 ‘공동육아’의 이름을 갖고 있어도 개별 터전(공동체)들은 다르다. 이 다른 공동체들이 연결되어 공동육아를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키워가고 있다.

4. 대안적 삶의 그물망 만들기로

(1) 커가는 아이들을 따라서 :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조합형 초등방과후를 만들거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곳들이 늘어났다. 때론 어린이집 졸업부모들이 대안학교를 만들거나 커가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배움을 나누는 마을학교나 작은도서관들이 생겼다. 지역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여러 개의 초등방과후와 지역아동센터 등의 초등돌봄기관이 어우러져 있기도 한다. 공동육아의 운영원리로 이어지는 아동돌봄기관들이 연결되어 새로운 마을관계의 기초를 만들어 간다.

(2)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이 대세인 지역사회를 만들다 : 공동육아는 급식을 친환경먹거리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모든 아동돌봄기관과 각 가정은 지역생협의 조합원으로 활동한다. 동시에 생태적 삶을 익혀가는 어린이집 생활을 일상생활로 확장해 간다. 손끝활동은 수공예문화로, 어린이집의 친환경 청소법은 가정과 지역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확장된다. 텃밭활동은 부모들이 도시농업으로 이어지게 한다.

(3) 넓어지는 돌봄의 관계망 : 영유아돌봄, 초등돌봄이 확장되면서 부모들은 지역에 머물러 사는 주민이 되었다.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따라 사는 것을 넘어 일상의 건강과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상호부조의 필요성, 중장년기에 접어들면서 겪는 대사중후군 등의 건강관리문제,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는 부모님들의 사안이 나의 문제로 등장해간다. 함께 아이를 키워왔던 사람들은 함께 다양한 돌봄의 사안을 해결하자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4) 마을과 사회적경제를 엮기 : 어린이집 시기부터 협동조합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필요와 욕구를 협동조합 또는 협동사업체를 만들어 해결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를 마을 속에 퍼트린다. 어린이집 교사, 아이돌봄활동가, 초등방과후 교사, 대안학교 교사, 수많은 마을교사들, 생협 직원과 활동가, 의료사협의 의료진과 직원들, 돌봄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생활응원활동가, 작은도서관 활동가, 수공예 협동체나 반찬가게나 빵집이나 두부 생산자들, 공동체은행 활동가, 그리고 자원활동가들 등 지역에서 협동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중 공동육아 출신들이 참 많아졌다. 이들은 하나의 직업으로 활동하지만, 다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자원활동가로도 활동한다. 서로가 몇 겹으로 연결되어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관계

로 깊어져 간다.

5.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40여 년에 걸친 공동육아의 방향과 활동은 아동돌봄기관들이 가야 할 방향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이름으로 제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초등방과후처럼 제도밖에서 고군분투하기도 한다. 마을학교와 같이 새로운 모색을 하는 영역도 생겨났다. 2019년 유아교육 국가교육과정은 ‘아동중심, 놀이중심’으로 바뀌어 공동육아의 지향이 모든 아이들에게로 확장될 수 있게 되었다. ‘생태’의 가치와 활동도 퍼져가고 있다.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공동육아는 기후위기 속에서 더 깊게 생태적으로 살 수 있고, 더 많은 이들이 수월하게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공동체성을 확산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 참고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육아, 더불어 삶』, 2019 ; 공동육아어린이집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페다회의), 『2020 공동육아교육과정 들여다보기』, 2020

2부

우리시대의 생명담론과 생명운동

- 생명논의와 포스트휴머니즘의 접점 최명애 52
- 새로운 생명담론과 운동의 이정표 신승철 60
-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운동 김현우 82
- 공통장 운동으로서 생명운동의 전환전략 조미성 88
- 전환기 생명운동의 방향과 전략 정규호 99

생명 논의와 포스트휴머니즘의 접점

최명애

(KAIST 인류세연구센터)

1. 생명 논의와 포스트휴머니즘

한국의 생명 담론과 생명 운동은 전통적 개념인 ‘생명’을 재발견하고, 현대적 상황에 맞게 대안적 담론과 실천으로 발전시켜 왔다. 전통적 의미의 ‘생명’은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 ‘생명체’와 생명체가 소유한 ‘생명력’을 가리키는 용어로(주요섭, 2020),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같은 기표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한국의 생명 논의는 전통적 자연 철학에 그치지 않고, 동학, 신과학 운동, 서구 생태주의 등 다양한 동서양 철학을 종합해 현 시대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는 환경 철학 이론이자 정치적 실천으로 발전해 왔다. 생명 논의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과 생명 존중(respect)의 윤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근본 생태주의적 모습을 보이지만(문순홍, 2006), ‘생성’의 원리와 ‘살림’의 규범은 이를 넘어서 최근의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와 교차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인간 너머의 지리학, 존재론적 전환, 생기적 유물론, 신유물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최근의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는 물질을 신체와 에너지를 가진 존재로 보고, 세계의 구성과 작동에서 물질이 갖는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Mol, 2002; Whatmore, 2002; Bennett, 2009; Lorimer, 2012; Tsing, 2015; Choi, 2016; Haraway, 2016). 특히 비인간, 즉 인간이 아닌 존재의 행위성(agency)을 강조하고,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정동적(affective)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 이들 포스트휴머니즘 연구자들은 인간과 비인간의 위계를 인정하지 않는 ‘평평한 존재론’을 기반으로, 인간 및 비인간 존재의 역사적, 물질적, 사회적 얽힘(entanglement)을 강조한다. 이들에게 세계는 인간과 비인간이 얽힌 혼종적(heterogeneous) 어셈블리지의 수행(performance)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적 성취물(relational achievement)로

이해된다. 이같은 측면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은 존재를 고정 불변의 실체로 보는 근대 철학과 구분되며, 과정적(process-based), 비본질주의적(non-essentialism) 입장을 취한다. 존재의 위계적 질서를 거부하고, 모든 생명의 유기적 관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은 생명 논의와 일정한 접점을 보이는 듯하다. 이 글은 포스트휴머니즘에서 생명 논의와 교차점을 갖는 논의 및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생명 논의의 발전 지점을 짚어 본다.

2. 포스트휴머니즘 vs 생명 논의

1) 위기 진단: 인간 중심주의 vs 산업 문명

포스트휴머니즘 계열 연구는 근대적 이분법을 거부하고 인간-비인간, 자연-사회의 얽힘과 분리 불가능성을 강조해 왔다. 인간 활동을 지구 환경 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최근의 ‘인류세’ 논의와 연결지어 이들은 특히 근대의 인간중심적 사유와 실천에 주목한다. 서구 근대의 특징적인 자연-사회 이분법과 그에 기반한 **인간중심주의**가 생태사회적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역사학자 차크라바티(2009)의 지적처럼, 근대 250년은 인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한 기간이지만, 동시에 전대미문의 속도와 규모로 생명을 파괴하고 지구 시스템을 교란한 자기 파괴의 연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생태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해 인간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인간-자연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간중심주의의 외부에서 세계의 구성과 작동을 사유하기 위해 이들은 특히 그간 간과되었던 비인간 존재에 주목한다.

생명 논의 역시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발했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와 접점을 갖는다. 생명 논의는 현재의 위기를 ‘생명 위기’로 보고, 위기의 원인을 ‘산업 문명’으로 지목한다. 따라서 산업 문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 기술, 경제 체제와, 근대적 이원론적 사유, 특히 기계론적 세계관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한다. 최근의 인류세 및 포스트휴머니즘 논의가 ‘인간’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다면 (인간 활동, 인간중심주의, 서구 자본주의), 생명 논의는 ‘문명’을 문제의 근원으로 본다. 이같은 시각은 서구 산업화, 과학기술, 인간 소외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심층 생태주의와 일정한 친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연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 생태주의가 주류 문명의 외부, 즉 ‘개인’의 각성과 ‘대안적 공동체’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 논의에서도 개인 및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져 보인다. 한편, ‘인간’을 문제시하는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는 ‘비인간’과 인간-비인간 관계의 혁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비인간 행위자 vs 생명체

포스트휴머니즘에서 ‘비인간(nonhuman)’은 인간이 아닌 존재, 즉 동물, 식물, 도구, 기술, 자연 현상, 나아가 지구 그 자체까지 지칭하는 폭넓은 용어다. 오랫동안 비인간은 인간의 간섭이 이뤄지는 수동적 대상, 혹은 배경으로 여겨져 왔다. 포스트휴머니즘은 한편 비인간이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즉, ‘행위성(agency)’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규정한다. 이들은 비인간이 선형적으로 행위성을 가진(possessed)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혼종적 연결망에 결합되면서 행위성을 ‘부여받았다’(distributed)고 본다. 한편, 최근의 생기적 유물론과 토착적 사유에 기반한 연구자들은 비인간이 존재 그 자체로 갖고 있는 활력(vitality), 힘(force), 물성(thingness)에 주목하면서, 비인간의 행위성이 단순히 부여받는 것 이상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또, 동물의 문화, 사회성을 드러내는 동물행동학 연구를 참조해, 최근 동물지리학자들 또한 동물과 같은 생물이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도구나 기술 같은 무생물과는 구별됨을 지적한다.

큰 틀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은 비인간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연결망에 결합된 행위자이며, 이들의 수행을 통해 세계가 새롭게 생성되고 전개된다고 본다. 또, 비인간이 사회적 실천 (e.g. 축산, 농업, 의료, 과학, 자연 보전) 등에 인간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개입해 온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강조하며, ‘공동체’는 인간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다양한 비인간이 결합되어 있는 ‘인간 너머(more-than-human)’ 혹은 ‘다종적(multispecies)’ 공동체로 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생명 논의의 생명은 인간을 포함해 동식물, 돌맹이, 흙까지 가리키는 개념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의 비인간 개념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를 구분하는 근

대적 이분법의 관성을 보여준다면, 생명은 모든 존재를 평평하게 취급하는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보여준다. 생명 개념은 생명 에너지를 갖고 상호 의존적으로 작동하는 존재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의 행위성과 혼종적 연결망 논의를 연상시킨다. 한편, 포스트휴머니즘이 행위성을 ‘부여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면, 생명 논의는 모든 존재가 선형적, 내재적으로 생명 에너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모든 생명은 ‘영(spirit)’이나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간의 ‘영성(spirituality)’은 생명의 거룩함을 느끼는 능력으로, 이 역시 선형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행위성이나 정동(affect)을 관계망의 결과물로 보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관계적 입장과 구분된다.

한편 김지하 등의 생명 논의는 ‘모든 존재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토착적 사유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는 듯하다. 김지하는 생명이 날개 개체 ‘실체’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우연적인) ‘생성(emergence)’으로 보고자 한다. 이같은 비본질주의적 입장은 존재를 연결망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것으로 보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입장과 조응한다. 또 ‘살림’은 존재를 ‘살려낸다’는 동사이면서 동시에, 혼종적 공동체를 가리키는 명사이기도 하다. ‘갯살림’은 인간뿐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존재들이 갯벌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음을 드러내며, ‘논살림’은 논이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생명을 부양하는 삶의 터전임을 상기시킨다. 이같은 ‘살림’의 공동체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 너머’ ‘다종적’ 공동체를 연상시킨다.

3) 번성(flourishing) vs. 살림

비인간을 인간과 함께 세계를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존재로 보면서, 포스트휴머니즘은 비인간의 행위성을 드러내고 반영할 수 있도록 윤리적, 정치적 실천을 새롭게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스텐저스와 라투르는 세계를 이해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데 비인간 존재를 적극 고려하고자 하는 이같은 정치적 지향을 코스모폴리틱스(cosmopolitics)라고 부른다. 인간, 동물, 나아가 다양한 비인간이 따로 또 같이 번성하도록 하는 ‘다종적 정의(multispecies justice)’는 코스모폴리틱스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번성(flourishing)’은 비인간이 단순히 수단으로 여겨지거나 고통받지 않는 수동적 차원이 아니라, 고유의 생태, 습성, 잠재적 가능성을 발현하고 발전시킬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수 있는 적극적인 차원을 가리킨다. 해러웨이 등은 인간과 비인간의 ‘차이’에 주목하고, 인간과 구별되는 비인간의 역량이 변성할 수 있도록 인간-비인간 관계를 재구성할 것을 강조한다. 비인간은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들은 비인간의 복잡함, 개성, 나아가 인간이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미지의 특성을 존중하고, 비인간의 ‘다름’이 세계의 구성과 작동에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는다. ‘번성’에 대한 강조는 비인간을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으로 보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근대적 생명정치와 구분되는 새로운 생명정치, 긍정적 생명정치(affirmative biopolitics)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번성’은 생명 논의의 ‘살림’ 개념을 연상시킨다. 기존의 (근본) 생태주의가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간섭 중지를 명령했다면, 번성이나 살림은 존재를 살려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장려하는 듯하다. 또, 살림이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생명이 함께 하는 ‘인간 너머의 공동체’를 상정하고, 공동체의 작동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동시에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번성 개념과 교차된다. 흙살림이나 논살림의 경우, 미생물이나 동물(오리, 메기, 우렁이)을 이용해 흙과 논에 결합된 생명들을 살려내는 형태로 실천되곤 한다. 이처럼 동물/자연을 ‘생태적 기술자(ecological engineers)’로 이용해 생태적 과정을 복원하는 방식은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 논의되는 대안적 자연 복원 방식인 ‘재야생화’와 비슷하다.

3. 비인간과 생명 논의

생명 논의와 포스트휴머니즘은 자연/비인간을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행위자’ 혹은 ‘생명’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또, 생명의 ‘생성’적 차원에 대한 강조와 ‘살림’의 원칙은 포스트휴머니즘의 과정적 존재론과 다종적 번성의 지향과 교차하는 듯하다. 한편, 인간이 아닌 생명, 즉 ‘비인간’에 대해 생명 논의는 포스트휴머니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 머무는 모습을 보인다. 필자는 아래 몇 가지 지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과 생명 논의의 비인간 논의가 차이를 보인다고 본다.

첫째, 논의에서 비인간이 갖는 위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주의’를 현 생태사회적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비인간’을 사유와 정치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한편, 생명 논의는 인간과 비인간의 인위적 구별을 지양하고 이들 모두를 ‘생명’이라는 큰 개념으로 규합한다. 생태사회적 위기의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생명’의 위기와 회복이 강조되지만, 포스트휴머니즘과 달리 비인간을 구별해 특별한 이론적, 실천적 위치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둘째, 비인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차이다. 최근의 동물지리학과 비판적 인류세 연구는 동물행동학, 생태학, 생물학 등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의 융합을 통해 비인간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동식물 및 미생물의 생태와 행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비인간의 생태적, 사회적 복잡성을 깨닫게 하고 이들에 대한 경이와 찬탄을 불러 일으키며, 나아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동적 기제로 역할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의 비인간 연구가 과학을 중요한 인식론적 도구의 하나로 활용한다면, 생명 논의는 과학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하다. <한살림 선언>이 신과학 논의를 인용하고 있지만, 이때 과학은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논하는 철학에 가까워 보인다. 또, 동식물과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 생산은 생명에 대한 기계론적 접근으로 이해되면서 생명 논의에 본격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듯하다.

셋째, 인간과 자연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의 문제다. 생명 논의는 인간과 인간 아닌 생명의 충돌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 생명은 존중해야 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다른 생명이 이용할 수 있는 존재다. 자연 보전과 연결시킬 때 이는 ‘양날의 칼’이 된다.

먼저, ‘생명 존중’은 온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감각이자 규범으로, 자연 보호의 강력한 원칙이 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조문에 ‘생명 존중’이 명시돼 있는 것은 동물 보호가 “인간의 생명 뿐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외경심,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수질을 둘러싼 논쟁 끝에 나타난 ‘생명을 살려달라’는 호소는 새만금 갯벌 매립 반대 운동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서구의 동물 보호 운동이 동물의 ‘쾌고감수능력(sentience)’이나 ‘이성’을 근거로 동물 보호를 제도해왔다면, 한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국에서는 동물/자연이 ‘생명’이라는 사실 자체가 보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명은 다른 생명의 필요에 따라 희생될 수 있는 존재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명을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은, 때로 인간에 의한 자연 착취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고래잡이가 오랫동안 이뤄져 온 울산 장생포에서는 ‘고래는 생명이지만, 인간이 먹기 위해 잡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생명을 살려 달라’는 호소는 온 국민의 마음에 울림을 남겼지만, 새만금 갯벌은 결국 매립됐다.

포스트휴머니즘 또한 인간과 비인간의 충돌에 대해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해러웨이 등은 윤리를 보편 타당한 도덕적 원칙에 따른 의무의 실천으로 보는 대신, 개별 인간-비인간 관계에서 드러나는 필요에 따른 맥락화된 실천으로 본다. 비판적 연구자들은 이같은 관계적 윤리가 현실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비인간에 대한 착취를 막지 못한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해러웨이는 특정한 인간-비인간 관계가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가리킨다. 특정한 생명에 대한 원칙적 보호나 이용을 명령하는 대신,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맥락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에 ‘응답’ 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물실험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 동물 실험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나아가 동물 실험의 중지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윤리적 실천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비인간의 충돌을 넘어, 비인간의 생태와 본성이 번성할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내는 보다 적극적인 응답도 가능하다. 해러웨이(2016)는 동물 윤리 연구자 데스프레의 논지를 빌려 인간과 비인간의 대면을 이들 존재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rendering capable)’ 견인할 것을 제안한다. 즉, 서로 다른 존재의 상호 작용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역량과 가능성들이 발견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인간의 행위성과 역량에 대한 강조는 인간-비인간의 상호작용을 ‘긍정적 생명정치’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 문순홍. 2006.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 주요섭. 2020. '몸-생/명'의 세계관, 저항과 꿈꾸기의 생명운동
- Chakrabarty, D. 2009. "The climate of history: Four theses". *Critical inquiry* 35(2): 197-222.
- Haraway, D. J. 2016. *Staying with the Trouble*. Duke University Press.
- Bennett, J. 2009.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ke University Press.
- Choi, M. 2016. "More-than-human geographies of nature: Toward a careful political ecolog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1(5): 613-632.
- Haraway, D. J. 2016. *Staying with the Trouble*. Duke University Press.
- Lorimer, J. 2012. "Multinatural geographies for the Anthropocen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 Mol, A. 2002. *The body multiple: Ontology in medical practic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Tsing, A. L. 2015.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hatmore, S. 2002. *Hybrid geographies: natures, cultures, spaces*. SAGE.

새로운 생명담론과 운동의 이정표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1. 억압이 아닌 풍요가 문제인 시점

성장의 파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성공, 승리, 자기계발, 효율, 속도 모두 충족되는 잘 나가는 삶이 도처에서 즐비하다. 협동조합도 잘 되니 어깨춤이 절로 나고, 40~50대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오니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매년 성장의 곡선은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득이 높아지니 수입과 지출이 제로라지만 성장을 거둬들이는 것이 협동조합의 일상이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단지 단기투기적인 지대가격 즉 부동산이득이 높아지는 것만 생각한다. 미래세대가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2022년은 OECD 7위인 한국사회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득바득 나선 사람들이 성장의 굶판과도 같은 대선을 치른 한 해였다. 그리고 성장을 불문율로 두고 정치적인 두 세력이 이전 투구하여 결국 보수를 자칭하는 성장주의 파시즘에게 자리를 내준 선거이기도 했다.

여기서 문제는 문명이 고장 나고 뺨겨덕거리고 기능 정지되어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명의 너무도 잘 돌아가서 문제라는 점에 있다. 성장에 기반한 자본주의문명은 천연덕스럽게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한때 억압가설에 입각한 제 3세계 모델의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는 성장주의 세대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작금의 현실이 풍요가설로서의 제 1세계 모델로 현실의 프레임이 바뀐 데 문제가 있다. 생명을 억압하는 죽음과 죽임의 문명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부추기고 도모하고 개발하여 잘 살고, 누리고 살고, 그저 맹목적으로 앞으로 앞으로 달리게 하는 데 문제가 있다. 문제는 생명이 억압받지 않고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생명이 어떤 제약 없이 잘 누리고 살고 있는 현실이 현재의 기후위기에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에 있다.

문제는 현존 세대들이 잘 누리고 살려는 맹목적인 충동에 온 힘을 투사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는 것이자, 기후난민과 제 3세계의 민중들의 흑독하고 살 수조차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이라는 점에 있다. 그런 점에서 기후정의와 불평등, 차별, 배제 등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의 세력은 파시즘적인 분리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장착하고 있으며, 기존 운동세력들조차도 성장주의 파시즘에 대한 견제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결국 우리 자신, 한살림생활협동조합이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으면 성장주의 시스템으로 빨려 들어가 자동적으로 법인격의 시스템이 작동하여 운동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잃게 된다는 엄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면 우리의 삶의 양식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 그것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속도와 규모의 문제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어느 정도일까? 최근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우리 앞에 있는 2050 탄소중립의 아젠다 앞에서 우리가 사용할 탄소예산의 규모는 정확히 한정되어 있으며, 그 이상을 쓰기 위한 아득바득한 노력은 미래세대의 몫을 좀 먹는 행위에 불과하다. 기후위기가 더 큰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양성피드백을 일으키는 티핑포인트가 7.3년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재 매년 IMF의 두 배에 달하는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2030년도까지 1/30로 물질발자국을 감축하여 1970년대 수준의 삶으로 돌아가야 제대로 된 2050탄소중립에 도달한다는 엄청난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문명은 너무도 잘 돌아가고 있고, 이러한 엄혹한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자본주의문명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같은 이자(interest) 기반에서 단기투기적인 지대(rent)기반으로 이행했기 때문에 미래전망조차도 상실한 것이다. 자본주의문명에게는 미래의 시간이 없으며, 외계인의 시선에서 지구에서 활동하는 법인격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는 상황인 셈이다.

2. 생명권력의 발호

“학교에 갈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이 사회는 우리 세대를 고려하지 않아요.” 유럽의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 행동에 나서면서 하는 얘기들이다. 스웨덴의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로부터 시작된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 행동은 이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전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파되고 있는 중이다. 기후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상황 즉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동식물들이 떼죽음에 이르고 있으며, 폭염과 폭우와 허리케인, 가뭄 등의 재난이 급습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현 세대와 문명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전환사회는 요원하다. 기성세대들은 그저 그 알량한 성장이나 부동산 가격, 주식투기, 개발사업 등에 몰두하면서, 지구와 생명과 미래세대가 어찌 됐건 자신만 잘 살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분명 기후위기 시대에 세대 간 차별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성장주의의 단물을 먹었던 세대와 임박한 기후위기의 상황에 마주친 미래 세대는 명암을 달리한다. 미래세대는 성공의 여지가 아닌 생존의 여부조차도 불투명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고, 기회의 소멸, 소득불평등, 세대 간 양극화의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시대가 더 심화되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여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후난민의 상황이다. 최저열량의 식사를 하며 누워 지내는 기후난민 사이에서는 새로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기후난민 어린이들 수천 명이 체념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루 종일 누워 지내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전망을 상실하고, 일종의 쇼크로 인해 잠만 자다 죽는 것이다. 주권 외부 생명의 상황은 심각하다. 열외자, 배제한 자, 생명만 유지하는 자로서의 기후난민의 현실은 참혹하다. 과거 생명운동이라는 단어가 가슴 벅차게 다가왔던 적이 있다. 그러나 미셸 푸코가 얘기한 생명정치단계에서의 생명은 주권내부, 문명내부에서는 자기계발, 힐링, 명상, 웰빙, 소화행, 미디어 등으로 달콤하고 부드럽게 생명력을 발휘하여 잘 살도록 만들고 있지만, 그 외부는 죽든 살든 내버려두며 배제한다. OECD 7위 한국의 모습은 자신의 보장된 문명 내부에서의 생명만 중요하며, 생명력과 활력을 발휘해서 요행을 바라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잘 살아보려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생명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그저 생명 자체, 생명력 자체가 모두 선(善)인 상황이라고 그대로 얘기해야 하는가?

생명정치 단계의 현존 문명은 생명이 발아하고 생명력을 발휘하고 친환경, 에코, 녹색 등을 슬로건을 내걸고 잘 살도록 만들고 있지만, 문명 외부는 철저히 배제한다. 이러한 문명 속에서 자신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더 생명력과 활력을 갖고 있고 말로만 녹색, 협동, 연대를 되뇌인다. 우리의 시야에서 배제된 제 3세계 민중, 기후난민, 미래세대는 아무런 감흥도 영향도 없다. 그저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만 잘 살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나 그것도

헛된 바램이고, 사실의 무의식의 저변에는 전반적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의 상황에서 전망을 상실하고 있다. 일단 문명 외부는 괄호치고 보는 것이고, 외부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의 시야에 보이는 현재, 당장만 어떻게 되겠지, 하는 나이브하고 단기적인 사유만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권력은 생명을 죽이는 권력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잘 살게 만드는 권력이다. 그러면서도 생명권력은 자신의 외부를 가혹하고 단호하게 배제하고 분리하는 권력인 것이다.

3. 생명자본의 발호

70~80년대 산업사회에서 생명운동은 죽음의 문명, 죽음의 문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한국사회에 파문을 남겼다. 장일순 선생님의 한살림농산으로부터 출발한 한살림생활협동조합은 생명운동의 산실이었다. 그러나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영역에서 현실이 변화하고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테면 마을운동이 젠트리피케이션에 포획되었듯이, 협동운동, 생명운동도 플랫폼자본주의(=정동자본주의)에 포획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정동자본주의는 플랫폼 내에서 정동(=생명력)을 발휘하고 웃고 울고 즐기다보면 그 정동이 만들어낸 부수효과는 모두 플랫폼의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력과 활력은 모두 자본의 성장 동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력, 활력은 가슴 벅차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과 힘과는 거리가 있다. 생명은 동원되고 부추겨지면서 결국 이용당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판을 깔아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유혹은 달콤하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가 성숙할 만큼 성숙했으며, 이미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인지자본주의단계를 거쳐 정동자본주의 단계로 이행하였다. 생명력과 활력은 돈이 되고 자본이 되고 권력이 되는 상황이 정동자본주의 단계이다. 그런 점에서 70~80년대 한국사회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생명에 대한 개념과 전혀 다른 단계의 생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명이 뛰어 놀 수 있는 판 자체에 대한 고려 없는 무조건적으로 선(善)이라고 여겨지던 생명에 대한 논의는 이제 무의미하다. 이는 더욱이 영성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살림과 생명운동이 자신의 역사를 세워서 정체성을 갖는 것은 소중하지만,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그러한 기억의 정치는 시간을 장악해서 자신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현재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기성세대들이 주인공이 되는 뻘한 판만이 구성될 뿐이다. 미래의 시간으로 줄기차게 나아가는 흐름이 있어야 미래세대와 청년들이 들락날락할 판이 생긴다. 역사를 세워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있던 기성세대의 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기성세대만이 놀이터와 판에서 잘 지내고 생명력을 발휘하지만 그 외부에 있는 미래세대와 청년은 구경꾼에 불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플랫폼자본주의의 개막은 생명력과 활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판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생명력과 활력 자체가 돈이 되고 자본이 되고 권력이 되는 상황에서 그 판 자체를 짜고 있는 집단의 성격과 방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생명력 자체가 억압되지 않고, 죽임과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발휘되어야 한다는 슬로건을 얘기하는 제 3세계 프레임의 생명운동의 시기는 이미 멀리 지나간 것이다.

4. 결국 성장주의 파시즘의 문제

죽임과 죽음의 문명에서 생명살림의 문명으로의 슬로건이 이제는 대대적인 수정을 해야 할 것이며, 배제와 차별, 문명의 시야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게 된 기후난민과 제 3세계 민중,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은 산업자본, 금융자본, 인지자본, 정동자본의 중층화를 통한 성장주의 총궐기의 시대이다. 산업자본주의는 성장주의 기반의 다양한 시설, 인프라, 공공재 등을 생산했지만, 과잉생산되고 중복생산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실물적 생산의 한계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1992)라는 지적처럼 한계테제에 봉착했다. 그 한계는 근본적으로 지구의 한계이자, 자연과 생명의 한계라는 점에 대한 직시를 하지 못하고 성장주의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변신하는 데 만족한다. 동시에 68혁명 이후에 포디즘과 케인즈주의 몰락 이후에 신자유주의라는 금융자본주의가 구체화되어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금융자본주의는 실물적 성장이 정지되기에 이르자, 화폐의 가격을 싸고 빠르게 유통시켜서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가상적인 금융경제를 작동시켰다. 초국적 금융자본 하에서의 온갖 파생상품과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의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역시도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금융과 사이

버네틱스의 결합에 따라 이루어지는 데 이번에는 사이버네틱스의 지식체계인 집단지성, 협력지식, 지식공유 등에 기반하여 사회 제 영역에 대하여 코드화를 통해서 가치를 추측하는 코드의 잉여가치가 구체화되고 이를 인지자본주의 양상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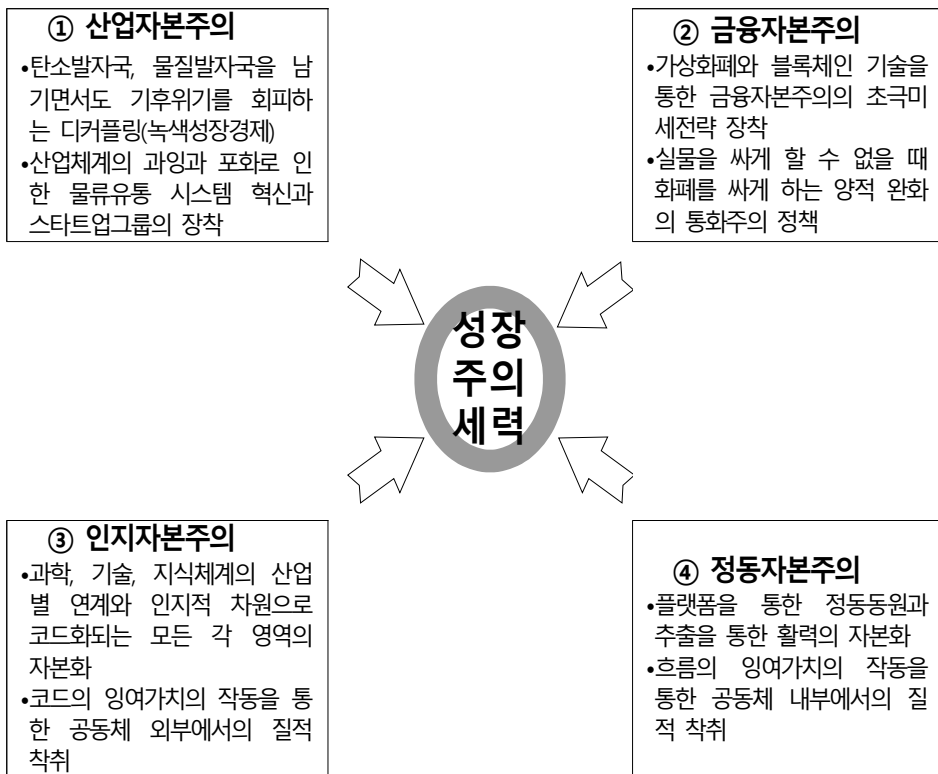
그러나 “관료주의=자동주의=기능주의”의 최후의 형태는 인지자본주의였다면,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원천인 정동(affect = 생명력)에 대한 관심으로 시스템은 이동하였고, 이제 삶의 과정 자체를 둘러싼 정동자본주의와, 공동체의 돌봄, 살림 등이 대쌍을 형성된다. 인지자본주의 하에서의 ‘코드화=가치화=의미화’를 통한 근대적인 의미작용은 한계에 봉착했고, 그 플랫폼의 판위에 정동(affect)을 통해서만 현재의 사회는 구성되고 작동하게 되는 정동자본주의 상황이 도래했다. 지식인 유형으로 “~은 ~이다”라고 코드화하거나 의미화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는 끝났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결사체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던 사업체가 저절로 움직이던 시기가 끝난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의미화 방식으로 정동을 추출하던 인지자본주의 양상과 정동의 생성과 과정 자체에 따라가는 정동자본주의 양상의 차이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인지자본주의는 비교적 합리적인 유형의 의미화를 통한 코드의 잉여가치(surplus de code)를 추구한다. 여기서 펠릭스 가타리의 코드의 잉여가치(surplus de code)라는 개념은 정동을 외부에서 포획하는 자본주의의 방법론에 대해서 다룬다. 그 항목으로는 ① 1세계와 3세계의 분리차별, ② 공동체적 관계망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자본의 전유양상, ③ 그 다음은 골목상권으로의 대기업의 진출, ④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⑤ 플랫폼자본주의 양상 등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정동자본주의는 인지부조화라도 같은 모방, 따라하기, 흐름을 통한 흐름의 잉여가치(surplus de flux)자체를 추구한다. 여기서 흐름의 잉여가치는 정동의 흐름에 따라 일과 활동을 만드는 대안운동의 전략이었으나, 정동자본주의의 원리로 차용된다. 공동체가 시너지를 발휘하고 이에 따라 정동의 강렬한 흐름을 촉발하고 생성시키는 것은 기존의 대안세력의 중요한 핵심명제였다. 그 항목으로는 내발적 발전전략, 공동체 경제, 사회적경제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정동자본주의 하에서의 정동의 흐름을 플랫폼 내에서 순환시키려 하는 자본의 의도가 관철된다.

정동자본주의에서는 모든 활력과 정동이 권력과 자본을 수반하기 때문에 수많은 관심종자(關心種子)를 낳았다. 자본과 권력은 활력과 생명력과 관련된 정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동을 어디로부터 수혈 받을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플랫폼자본주의는 정동을 여타 천연자원처럼 추출하고 채굴한다는 점에서 정동자본주의이다. 이제 플랫폼에서 웃고, 울고, 즐기고, 떠들다 보면 그 이득은 모두 플랫폼이 가져간다. 그러나 정동은 인간을 구성하는 생명력이자 활력이다. 그러한 구성적인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정동자본주의는 그저 정동을 소재나 자원으로 바라볼 뿐 사회구성과 사회혁명의 원천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정동의 토대는 플랫폼 자본주의와 정동자본주의를 넘어 살림해방, 정동해방, 돌봄해방, 욕망해방의 지평에 닿아 있다는 점에서 68혁명의 야성적인 메시지와 상통한다.



최근 벌어진 산업자본, 금융자본, 인지자본, 정동자본의 중층화양상은 성장주의 세력이 기후위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파티를 즐기겠다는 의도 하에서 네 가지 영역의 자본양상을 교차하면서 성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동자본이라는 새로운 자본 양상은 삶의 영역과 생명력까지 성장에 동원하겠다는 자본의 궁극의 의도를 의미한다. 결국 한 살림은 사회구성과 인류재건의 입장에서 탈성장 전환사회로 향한 정동해방경제를 작동시켜야 한다. 성장주의 세력이 우리의 활력과 생명력까지 내려와 있는 현재의 상황

에서 관계의 풍요와 활력의 해방을 통한 탈주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성장주의 세력의 최후의 전선이 바로 생명력과 활력 다시 말해 정동(affect)를 둘러싼 전선이라는 점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구성하고 연대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인 것이다.

5. 생명운동이 탈성장 전환사회로 향해야 하는 이유

한국사회도 한 때 제 3세계였던 적이 있고, 발아상태의 청년기였던 적이 있다. 한살림의 태동에서 지학순 주교는 독일 재단으로부터 수해복구금을 받아서 원주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종잣돈으로 삼았다. 바로 1세계가 3세계에 할 수 있는 연대의 혜택을 입은 것이다. 이제 잘 사는 나라인 한국의 한살림이 제 3세계와 기후난민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한살림의 생명운동은 세대의 격자에 사로잡히거나, 보편논법의 형이상학적 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더욱이 주권 내 생명 다시 말해 민족주의의 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자신과 가장 거리가 먼 존재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결국 연대와 협동이 가능하다.

현재의 정동자본주의 상황은 더욱 생명운동의 전환의 계기로도 다가온다. 생명운동은 커먼즈와 플랫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차이점 대부분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커먼즈를 둘러싼 해석과 이해방식이 두 주체성 사이에 사뭇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정동을 채굴하는 플랫폼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커먼즈로서의 활력정동을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공유경제라는 방식의 이야기구조를 설립한다. 그러나 공유경제에 있어서 공동이용에 머무는 쉐어링(Sharing)으로서의 공유경제와 공동소유로 나아가는 커먼닝(Commoning)으로서의 공유경제는 엄밀히 구분된다. 자본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질적 착취의 국면에 있어서 코드의 잉여가치 단계에서의 외부에서 그 가치를 추출하고 채굴하려는 인지자본주의 단계를 넘어서 흐름의 잉여가치 단계에서의 공동체의 판 자체를 스스로 설립하려는 정동자본주의 단계로 숨 가쁘게 이행했다.

이제 커먼즈의 대부분의 영역에 플랫폼이 설립되어 자본화를 시도하는 국면이 도래했다. 이러한 국면은 탈성장 전환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커먼즈 경제를 마비시키고, 커뮤니티의 설립을 통한 탈성장 전환사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회로서의 이행의 전략을 어둡게 한다. 그러나 물론 미세한 빈틈 속에서 커먼즈를 구성함으로써 사회를 재건하려는 노력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러나 플랫폼과 커먼즈의 심대한 차이는 주체성 생산의 계기가 성장주의에 있는지, 탈성장 전환사회에 있는지에 있어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플랫폼은 최후의 성장의 파티를 열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지만, 커먼즈는 관계의 풍요에 입각한 탈성장 전환사회로의 이행기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바로 생명운동은 정동자본주의에 직면하여 커먼즈 기반 탈성장 전환사회의 전망으로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20대 대선에서도 보이듯이 사회구도는 빈부격차나 계급적인 것이 아니라, 성별, 세대 등의 이해와 요구가 명확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더욱이 개인적인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는 권력구조가 승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기만 잘 살아 보겠다고 아우성인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한살림은 과감하게 탈성장과 제로성장으로 향하면서 그 차익분을 기후난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전면적인 연대와 협동의 자리를 깔아야 할 것이다. 조직의 규모를 늘리기보다 탈성장의 관점에서 기후난민과 제 3세계, 청년세대에 대한 우애와 연대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22년 한살림의 새로운 생명운동선언은 탈성장운동과 이에 따른 기후난민, 청년세대와의 연대선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이 가슴 뜨거웠던 적이 있다. 그러한 가슴 뜨거운 감동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것은 한살림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이다.

부록 : 생명운동과 탈성장의 비전에 대한 단상

① 생활양식의 적극적인 재편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성장주의적 삶의 방식, 다시 말해서 성공주의, 승리주의, 자기계발, 속도, 효율성, 경쟁 등의 통속적 문명의 삶의 양식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는 능동적 전환에 있어서는 느낌과 여백, 삶과 실존의 재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수동적 전환에 있어서는 패배주의적인 마인드나 우울, 감쇄, 후퇴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구조를 바꾸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근대의 주인공담론이 갖고 있는 주체-대상의 이분법을 허물고 대상으로 간주했던 자연과 생명의 객체지향적인 마인드로 역행(involution)해야 한다. 여기서 역행은 ‘안으

로 되 말리는' 것으로 자연과 생명을 향해서 되감기는 방식의 객체지향의 삶의 방식, 즉 농(農)가치의 부활을 의미한다. 가족주의적인 습속에서 벗어나 대안적 친척을 동물, 식물, 사물, 기계, 미생물과 함께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안으로 되 말리는 과정은 더욱 혁명(revolution)과 같이 밖으로 파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환과 재-진입의 속도를 높이면서 생활양식의 궤도를 탈성장장으로 연착륙시킬 것이다. 통속적인 생활양식으로서의 TV, 육식, 자동차, 아파트, 마트, 일회용품 등의 가시적인 분야에서의 변화 역시도 수반될 것이지만, 보이지 않게 삶의 지향성을 바꾸는 것이 우선적일 것이다. 탈성장 전환사회는 완벽한 다른 생각, 다른 생활양식을 창안할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사용할 만큼 바쁘고 활력 있는 삶 속에서 탈성장 전환사회의 가능성의 창이 열린다. 자동적이고 편리한 방식, 찰나의 단기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저편으로 사라지고 생명과 자연을 돌보는 무수한 활력을 발견하기 위한 증후적인 사회구성체의 설립이 가능하다.

②녹색전환의 가시화

녹색전환은 산업재편과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으로서의 노동자의 소득과 일자리 보장 등을 포괄하는 전환의 프로그램이다. 녹색전환에서 전환의 의미는 transition으로서의 자리바꿈의 전환이 있을 수 있지만, 체제전환으로서의 transformation이 있을 수 있다. 탈성장 전환사회로의 이행기의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급격한 전환이나, 점진적인 전환이나의 논쟁의 상으로는 전환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문제는 점진적인 전환에 있어서 비용의 문제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나 전기자동차, 수소용광로 등의 여전히 성장 기반 산업형태를 유지한 채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전환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전환 자체를 전통적인 농업문명 형태로 전환하는 '문명의 전환'이 힘을 얻고 있는 중이다. 현재 녹색전환을 주장하는 녹색진영에서는 사실상 이행기의 전략에 대한 논의를 가시화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생활양식의 재편으로는 부족하고 산업재편에 대해서 논의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녹색구조조정 과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명의 전환이라는 급격한 전환이 있기 전에 과정형적이고 진행적인 산업재편의 점진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녹색구조조정에 대한 항목과 재편 이후의 산업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상과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그렇지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않는다면,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붕괴의 가시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네트워크나 민주주의 등은 기술과 화폐에 기반한 녹색전환의 프로그램이다. 생태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생태권위주의로 향하는 움직임조차도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행기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문명이 유지되는 한 녹색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의 체제전환파의 심대한 압박과 기후행동은 가속화될 것이다. 자본 역시도 인류멸망의 필패의 전망 속에서 결국 산업재편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불평등, 기후정의, 민주주의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녹색전환은 구체적인 기후행동 없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 역시도 드러나는 시점이다.

③산업재편 시 협동조합으로 다시 모이기

산업재편 시에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전환과 소득보장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서 대한 이행기의 전략은 응답해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구체적인 슬로건은 이에 화답하는 방법론 중 하나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짜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이를 테면 자동차 엔진산업 노동자의 대부분은 어디로 재배치되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노동조합 단위로 모인 노동자들의 조직형태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녹색산업에 재배치하는 하나의 방안이 제출될 수 있다. 이는 자활이라는 개인적인 단위로 분해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에 기반한다. 물론 교육훈련과정에서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일자리전환을 위한 대응방안 역시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 보존을 위해서 사회적경제로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질 나쁜 일자리나 소득 저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임금인상 중심이나 산업재편을 해고로 받아들이는 기존 노동조합과의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산업재편을 보이지 않게 장기적인 방향으로 암암리에 추진하여 그 충격을 완충하려는 자본의 시도 역시도 상존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여 의제화하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는 수면위로 떠오를 수 없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포용력과 수용력은 새로운 의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사업의 유지에 매달리면서 공공에 의탁하고 있는 형국 하에서는 노동

조합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나, 노동자와 실업자들을 포괄하는 수용력 있는 협동조합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단위에서의 대대적인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화와 미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후에야 비로소 사회적 경제가 기후위기에 대한 선도성과 혁신성을 갖게 될 것이다.

④ 돌봄모듈의 강화와 돌봄의 가치화

돌봄 기본소득과 같이 돌봄의 가치화로 향하는 방향성은 사실상 탈성장 전환사회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하고, 돌봄되는 상호작용이 강렬한 돌봄모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사회구성적 실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 돌봄모듈에 대한 지원과 사회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한다. 유아기의 절대돌봄, 청년기의 자기돌봄, 결혼 시기 동안의 서로돌봄, 중장년기의 배치돌봄 등 돌봄모듈의 생애사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아침 기상부터 아이들의 돌봄기관 보내기, 부모님 주간보호센터 보내기 등의 시간대별의 돌봄과 관련된 시나리오적 접근을 통한 돌봄공백에 대한 대처가 요구된다. 특히 영케어러 등에 대한 일자리 수준의 보상과 가치화를 통한 사회화된 시스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봄의 가치화의 영역은 그저 돈을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돌봄프로그램과 돌봄 다이내믹 시스템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돌봄모듈의 설립을 사회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돌봄의 잠재력이나 보이지 않는 역량에 대해서 돌봄의 가치화가 가치 저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것이 아니라, 돌봄프로그램과 돌봄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돌봄프로그램이나 돌봄시스템은 비교적 비용도 들지 않는 방법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힐러리 코탐의 『레디컬 헬프』(2021, 착한책가게) 등에서 이미 단상과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 공공복지시스템을 통해서 돌봄을 해결하려 할 때 직면하게 되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돌봄프로그램이나 돌봄시스템은 돌봄모듈형성의 동기와 자원, 활력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방안이 될 것이다. 결국 사회구성체 자체에 기반이 되는 돌봄모듈에서의 강렬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구조와 자원순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⑤관계 중심의 풍요모델

기존 문명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의 정보와 소식을 접하고,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과 거래를 하고,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과 벽을 맞대고 잠을 자는 상황이었다. 이제 탈성장 전환사회는 관계를 실질화하여 관계 중심의 판을 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도시사회에서 고립된 개인들의 소외, 무위, 고독, 외로움, 고립 등을 벗어나서 관계 속에서 일을 도모하고, 생활세계 속에 가족, 이웃, 친구 등을 개입시켜 풍요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체와 네트워크가 해야 할 역할이 지대하다. 공동체의 경우에는 근접거리 관계망 속에서 서로의 깊이와 잠재성을 응시하는 판이어야 하며,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원거리의 관계망까지 포괄하면서 비스듬하게 관계 맺는 방식의 판이어야 할 것이다. 혼자서 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관계 속에서 해내는 일들이 대부분이도록 한다면, 결국 자원-부-에너지가 개인에게 점유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풍요모델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풍요에 대한 탐색은 많은 연구자들이 접근해 왔지만, 그것이 어떻게 관계의 실질화를 이룰 것인지까지는 접근하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다. 관계의 풍요모델은 이야기구조가 없는 상품 중심이 아니라, 이야기구조가 있는 선물 중심의 호혜와 증여의 판을 의미한다고 일컬어진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 관계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이 봉착하는 문제가 이야기구조의 위기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결국 수많은 이야기꾼을 양성하는 것이 관계의 풍요모델에 접근하는 경로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사회구성적 실천으로서의 관계 중심의 풍요모델은 결국 자원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하는 관계 자체가 던져주는 다양한 혜택과 풍요, 더불어 가난이 갖고 있는 이야기구조를 재건하고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문제설정 앞에서 여러 이야기구조를 가지면서 탄력성과 다양성의 여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해결의 여러 경로일 수 있다.

⑥기본소득의 전면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재난기본소득의 색다른 실험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본소득은 식자층의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제도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일부가 되었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전면화의 과정에서 MMT(Modern Monetary Theory : 현대화폐이론)과 같이 국가가 직접 돈을

찍어 시민에게 나누는 주권화폐의 개념이 제도적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발권국인 1세계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동시에 이 실험이 갖고 있는 한계는 화폐의 가속주의를 통해서 오히려 화폐의 감축이 아닌 화폐의 풍요 - 인플레이션 - 속에서의 탈성장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류학적으로 조개껍데기화폐가 유통되면서도 거대한 폐충이 그 곁에 있었던 흔적도 있다. 우리는 기본소득의 상상력을 탈성장과 연결시키는 방안과 이행기의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노동과 소득, 자본과 소득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기본소득의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성장주의 기반의 자원마련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탈성장과 기본소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펠릭스 가타리는 『안티 오이디푸스』(2014, 민음사)에서 민주주의의 가속화가 봉건제의 잔재인 아버지의 표상으로 등장하는 자본과 권력을 분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가속주의 입장이 탈성장과 결합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화폐에 대한 생태민주주의의 이행기의 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만약 불평등과 기후정의 문제를 화폐의 민주주의로서의 기본소득이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생태민주주의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기술과 화폐를 자본과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생태민주주의의 첨단점이 되게끔 만드는 전략적 논의가 필요한 셈이다. 결국 탈성장으로 향하는 과정형적이고 진행형적인 측면을 생태민주주의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⑦농(農) 가치의 실현

농업으로의 전환은 녹색전환에서 핵심적인 이행기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이면서, 동시에 녹색기술을 통한 점진적인 전환이 아닌 전면적인 생활양식의 전환, 즉 문명의 전환으로 일컬어져 왔다. 농 가치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농촌, 농민, 농업이라는 3농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마을텃밭, 상자텃밭 등의 색다른 도시 유형의 삶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의 쿠바의 유기농업의 사례처럼 전환의 시점에서 농 가치를 통한 대응방안은 풍부한 이야기구조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면이 있다. 지역의 농업 로컬푸드와 먹거리를 연결하는 푸드플랜은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농 가치의 전면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전지구적인 물류유통인 로지스틱스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에 기반하여 77%정도의 먹거리를 수급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농업과 먹거리의 연결은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농업 분야에 대한 자본의 개방압력과 축소화의 요구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생태주의 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유럽의 농 가치의 실현이 68혁명 시기에 히피라고 불리던 생태공동체 운동의 탈주선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농가치의 실현의 그저 제도 설립과 청년층 행동유인책 등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거대한 욕망해방, 정동해방의 물결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시 말해 탈성장 전환사회는 활력과 욕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농 가치를 향해 폭발하고 거대한 탈주의 물결을 만듦으로서 전면화될 것이다.

⑧커먼즈 중심의 경제구조 설립하기

커먼즈는 기본자산 개념의 토지, 자본, 화폐의 요구를 불식시킬 유일한 방안이다. 동시에 커먼즈는 관계의 풍요 속에서 공유자산, 공동재, 공유지 등을 살찌우고 양육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공동규약과 자치규약의 설립을 유발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국면 이래도 끊임없이 개인으로 분해되던 사람들의 관계망과 배치를 설립할 때 그것은 커먼즈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공진화할 것이다. 물, 공기, 대지 등뿐만 아니라, 예술, 오픈소스, 지식체계 등에서 커먼즈 기반의 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커먼즈의 실험이나 빈틈과 여백 속에서의 실천이 있었지만, 탈성장 전환사회만큼 커먼즈의 역할이 전면에서 서게 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커먼즈에 기반하게 되면 상품질서가 갖는 의도적 진부화의 반대효과인 의도적 계토화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의도적 계토화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고 유능한 방법보다는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지평의 개방을 뜻한다. 그것은 여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구조와 상상력이 들어갈 틈이 있는 여백을 개방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와 자치를 유발할 것이다. 뭔가 사람들이 내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가난과 여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커먼즈 기반의 경제구조는 자율성의 미시정치의 판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 경제가 작동하는 것은 그 경제가 돌봄과 살림의 여백을 갖고 그 후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커먼즈 기반의 경제는 기존 자본과 권력의 집중적이고 중앙집중적인 방식이 아니라, 책임이나 동기, 목적 등이 분산되고 생태민주주의에 따라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경제의 방식을 따를 것이다.

⑨수직은 수축, 수평은 팽창

권위와 위계는 권력과 자본의 집중성과 수렴성 때문에 발생된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자본주의 내의 봉건제적인 잔재이다. 민주주의는 사회불평등, 빈곤, 차별, 위계, 차등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풍부해진다. 이를 아나키즘적인 이데올로기로 간주하면서 하나의 이상이나 꿈과 같이 치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전면화하고 더욱 가속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의 고정관념과 응고물들을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생활양식에서의 민주주의 즉, 생활 속 민주주의와 미시정치로서의 생활정치를 전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과 자본에게 목을 축이며 그것에 의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른 문제점을 낳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수직지점에서의 불평등과 차별, 배제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다시 하나의 수직으로서의 단일전선(계급전선)으로 집중시키고 수렴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수평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직선과 수평선 사이의 횡단선을 그리는 미시정치를 필요로 한다. 결국 수직으로서의 차별, 불평등, 위계를 기능정지시키고 파열시키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삶에서의 이행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민주주의 자체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탈성장 전환사회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서, 생태권위주의와 에코파시즘이라는 극우파들의 논리에 대항전선을 의미한다. 우리는 신중하게 모든 지점에서 민주주의를 적용하고 민주주의를 가속화할 입자가속기를 찾고, 수직을 무력화할 수평의 영향력의 확대를 위한 횡단성의 미시정치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⑩노동에서 정동(affect)으로의 이행

초기 맑스의 '산 노동'은 정동으로서의 생명력과 활력 개념과 통하는 바가 많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은 작업(work)로서의 의미가 더 커진 상황이며, 정동과는 거의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노동의 퇴조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여겨질 정도로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을 퇴출시켜 왔다. 이에 따른 자동화의 과정은 결국 인간의 역할의 축소로 향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향한다. 그러나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은 정동(affect)라는 개념으로 이행해 있다. 탈성장 전환사회는 노동을 축소하고 소득으로부터 노동의 고리를 끊어냄과 동시에, 정동으로서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의 활력을 더욱 배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경제 이후에 살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림(=활력) 이후에 경제(=자원)이 뒤따르는 상황으로 역전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동은 정서와 감정의 이행과정에서 발휘되는 힘과 에너지의 개념이다. 우리가 뾰족한 나이프와 포크를 보면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과 정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정동은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런히 배열해서 ‘맛있다’로 이행시킨다. 탈성장 전환사회는 정동으로서의 돌봄, 모심, 살림, 보살핌 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노동을 정동으로부터 분리시켜 상품화하고 자본화하는 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동 자체의 자본화를 더욱 강조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다시 정동자본주의(=플랫폼자본주의) 하에서는 플랫폼의 판 위에서 웃고 울고 즐기고 활력을 발휘하다 보면 그 이득은 모두 플랫폼이 가져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정동의 흐름에 대한 포획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정동은 사회구성과 인류재건의 원동력임에는 분명하다. 탈성장 전환사회는 욕망과 활력, 정동이 더욱 풍부화되고 폭발적으로 증대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는 탄소기반의 경제에서 보여주던 편리함과 나태함, 둔함 등과는 관련이 없는 활력, 생명력, 힘이 들끓는 새로운 사회상을 의미한다. 동시에 정동이 갖고 있는 욕망가치(=정동의 강렬한 가치)가 기계류 형성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 역시도 전면화되는 사회를 의미할 것이다.

㉞생태적지혜의 전면화

탈성장 전환사회의 도래는 기후위기, 생태계위기 등의 이유와 본질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행기의 전략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한다. 결국 지식과 정보에 따라 압박한 위기를 느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이다. 그런 상황에서 생태적지혜의 방법론이 다시 전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생태적지혜는 공유지에서의 지혜나 연결망의 지혜로 불리는데, 발효, 약초, 종자, 식생, 요리, 저장, 벌레퇴치 등에 대한 암묵지, 노하우, 습(習)으로서의 지식체계를 의미한다. 생태적지혜는 여러 모델을 넘나드는 메타모델화에 따라 탄력성을 추구하며, 하나의 모델에 집중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아카데미의 방법론과는 차이를 띤다. 탈성장 전환사회로의 이행기의 전략을 그려낼 때 생태적지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탈성장 전환사회를 시스템적으로 완결되고 효율적인 질서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생태적 연결망으로서의 사회, 자연, 마음

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중, 어림짐작, 주먹구구식의 그림과 도표 속에서 그 방향에 필요한 여러 시스템들에 대한 교차적이고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이념적이고 완결적인 이행기의 전략 논의가 아니라, 과정적이고 진행형적인 이행기의 전략 논의가 비로소 가능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왜?’를 질문하면서 이유와 본질에 대해서 대답하려는 강박을 버리고, ‘어떻게?’를 질문하면서 작동과 양상으로서의 문제제기 자체가 갖고 있는 깊이와 잠재성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탈성장 전환사회의 이행기의 전략은 과학적이고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적이고, 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등등의 다양한 모델을 넘나드는 메타모델화과정의 탄력적이면서도 대체로 적응된 바에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㉔네트워크의 보존과 다이내믹 시스템 구상

생태민주주의는 기술과 화폐 등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탈성장 전환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이 오히려 퇴행으로 다가갈 수 있다. 기술 중에서도 포기할 수 없으며, 재전유되어야 할 기술이 바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사물, 기계, 생명, 인간간의 기존의 본질과 이유를 연결하는 동일시나 공감의 방식을 넘어서 하나의 코드와 다른 코드를 비스듬히 연결하는 횡단적인 관계망을 개방했다. 이를 통해서 자율성의 여지를 극대화하였으며, 동시에 간(間)네트워크 사회의 가능성을 개방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더욱 세밀해졌으며, 수직과 수평, 코드와 코드, 사물과 사물, 생명과 생명, 모델과 모델 사이를 비스듬히 횡단적으로 연결하는 민주적인 방법에 대해서 시민들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서 자본과 권력의 고정관념이나 응고물을 넘어서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기술사회에 대해서 구상이 등장하였다. 특히 네트워크는 지식과 정보, 코드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차이를 낳은 차이로서의 색다른 다이내믹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다이내믹 시스템에 대한 구상은 생태주의를 자연주의라는 자연발생성과 자연치유력의 신화로부터 구출하고 제도주의와 결합된 생태계를 개방해 냈고, 공동체를 동질적이고 평균적인 집단화로부터 구출하여 가까이 있는 존재들의 깊이와 잠재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바로 향하게 했다. 이런 점에서 네트워크의 다이내믹 시스템은 복잡계로서의 사물, 생명, 인간공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동체, 자연 등의 질서의 재창안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인류는 기술 중에서도 네트워크와 같은 영역을 포기하고 탈성장 전환사회로 나아가서는 안 되며, 오히려 네트워크를 통해서 색다른 탈성장 전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이행기의 전략에 대한 구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⑬호혜와 증여의 커뮤니티 사이 조직화

호혜와 증여의 커뮤니티 그 자체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성숙되는 내발적 발전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상상력을 발동시켰다. 이는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이 던져주었던 인류학적인 탐색으로부터 시작하여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까지의 맥락과 이야기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구조 자체에서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사이의 거래와 교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이나 자유시장에게 맡겨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친밀하고 유대적인 커뮤니티 관계망 외부의 존재에 대해서는 낮은 익명의 사람들로 타자화하여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고 있는 것이다. 탈성장 전환사회는 이러한 타자화된 질서를 자본화라는 이야기구조 자체로 바꾸어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출발할 것이다. 오히려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사이배치 속에서의 이행기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배치와 배치 사이, 맥락과 맥락 사이의 관계설정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 상황인 것이다. 비교적 탈성장 전환사회의 상과 이미지는 우애와 환대 사이에서의 거리조절로 이야기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배치 속에서의 우애와 배치와 배치 사이에서의 환대라는 측면에서 환대가 작동하는 커뮤니티와 커뮤니티의 사이배치가 굳이 시장의 질서나, 이야기구조의 자본화로 나타나는 것으로 한정짓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다. 오히려 사이배치 속에서는 배치와 배치 사이와 곁을 비스듬히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증여와 호혜의 풍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탈성장 전환사회는 커뮤니티의 이야기구조에 머물러 이를 자본화하는 것이나,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사이를 타자의 영역으로 던져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이배치를 횡단코드화하는 네트워크 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수준의 증여와 호혜의 관계 맺음을 구상하는 것으로 향한다. 그런 점에서 익숙하고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증여와 호혜를 통해 탈성장 전환사회로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낮은 익명의 커뮤니티와의 교류와 교섭 속에서도 새로운 수준의 증여와 호혜를 통해 탈성장 전환

사회로 향하는 것도 이행기의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㉔나서는 자가 아닌 판짜는 자 중심의 양육자모델

탈성장 전환사회는 근대의 주인공 담론이 갖고 있는 주인공-관객, 주체-대상, 실험자-피실험자 등의 구분으로부터 자유로운 n개의 지평을 여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인공이 나서면 이에 계몽된 대중이 나서는 구도가 아니고, 각자의 다양한 주체성들이 아우러져 함께 화음과 리듬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짜는 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일 것이다. 결국 판짜는 자는 나서는 자를 만드는 과정에 한정되지 않는 색다른 과제인 새로이 등장하는 판짜는 자로서의 주체성 생산의 임무를 가질 것이다. 탈성장 전환사회는 나서는 자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동화를 그려내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소 불편해지고, 다소 타협하거나, 다소 갈등하고, 다소 주저하는 등의 입체적인 주체성 양상을 잘 조율해내서 일관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관계망과 배치의 판 자체를 생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뒤주나 곡간에 곡식이 없음에도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오래전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아주 적정수준으로 자원과 소비규모를 맞추어내는 미학적인 과정으로서의 살림꾼의 모습일 수도 있고, 생명, 자연, 사물, 기계를 양육하고 부추기고 도모하면서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소농의 모습일 수도 있다.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판짜는 자이기 때문에 다소 어눌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뒤로 주저주저하면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 줄려고 한다. 근대의 주인공 담론은 공동체를 무시하고 오히려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위선과 오만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인간중심주의라는 색다른 문제를 낳았다. 판짜는 자의 전통의 복원은 결국 자신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과 배치 속에서 공존하고 공생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생명과 자연으로부터 갈취하고 추출하고 채굴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그 생명력을 고무시킴으로써 스스로도 함께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판짜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탈성장 전환사회는 대규모 주체성 생산으로서 판짜는 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㉕공생과 공-산(synpoiesis)의 모델

탈성장 전환사회는 살림과 돌봄의 자기생산의 행위자 모두를 인정하면서 그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모든 존재들의 공생과 공산의 입장에서의 공동생산, 공동제작, 공동조력의 영역으로의 이행기의 전략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유로든 젠더, 나이, 학력, 지역, 이념 등의 차이로 자기생산의 개체로서의 존엄이 희생되거나 차별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모두를 살림살이가 팍팍한 자기생산의 존재들로 이해하면서 공동의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교섭하고 상호생성되는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어떤 이념이라도 미리 전제된 의지적 주체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존 세대의 희생과 이상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그것이 갖는 불평등과 차별, 차등, 위계의 원리에 의탁해서는 생태민주주의의 가속화를 통한 이행기의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상호부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념적인 잣대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상호부조는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공생과 공산의 의미는 동시에 주인공 담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편에서 주체이고, 다른 한 편으로 주체의 지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주체-대상의 이분법은 공생과 공산의 관점에서 폐기되어야 하며, 소수자, 민중, 생명, 자연은 스스로가 자기생산하여 존엄을 가지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공생과 공산의 입장에서 그 존엄을 지켜 주면서 동시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색다른 시너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 없는 사회적 경제나 협동 없는 협동조합, 연대 없는 연대체의 모습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공생과 공산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서로 돕고 독려하고 고무하는 공동생산, 공동제작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㉞생태민주주의의 가속화와 영구적인 이중권력모델로서의 시민의회

탈성장 전환사회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테제 즉,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자본과 권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공동선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생태민주주의를 가속화함으로써 자본주의문명의 한계 지점을 돌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국가주의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재의 지점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인류문명 자체의 재건과 구성의 입장에 서기 위한 기후시민의회의 설립으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문명은 생명과 자연, 인류문명, 사회 전반을 파괴할 만한 가공할 위력으로 자본의 증식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반해 기후시민의회는 생태민주주의의 가속화를

통해서 문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재건과 구성의 입장에 선다. 사회를 미리 주어진 전제조건으로 보면서 공통감각(Commons Sense)이나 상식 속에서 사회는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근대의 헤겔과 같은 동일성의 철학자들이 현존 문명에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은 모순, 대립, 갈등이 사회의 성숙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그러나 수단, 예멘, 미얀마, 시리아 등 죽은 국가, 죽은 도시가 즐비하게 출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사회구성적이고 인류재건적인 실천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기후시민의회가 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기존 문명의 국가권력과 이중권력을 형성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성장주의에 기반한 헌법에 기초한 현존 문명의 정부와 달리, 기후시민의회는 스스로 제헌의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탈성장 전환사회의 헌법적인 기초를 설립하기 위한 사회구성적이고 인류재건적인 상상력과 이야기구조를 생산할 것이다. 결국 제헌적인 권력이 두 개가 생기는 상황에서의 이중권력의 상황은 생태민주주의의 가속화과정에서 구축될 새로운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주의 제헌의회와 탈성장 전환사회 제헌의회 양 갈래는 어떤 민주주의가 정말로 인류재건적이고 사회구성적인지에 대한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운동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 인류세와 기후변화의 심리학

인간이 생존하기에 알맞은 기후 조건이 만들어진 것은 매우 작은 확률의 우연들이 겹친 덕분이다. 46억년의 지구 역사 속에서 적당한 이심률, 세차운동, 자전축의 기울기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지구는 일정한 온도와 대기의 운동을 갖는 환경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의 지질시대를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농경문명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 ‘충적세’, 또는 인류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시대라는 의미에서 ‘홀로세’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지금은 신생대 제 5기 ‘인류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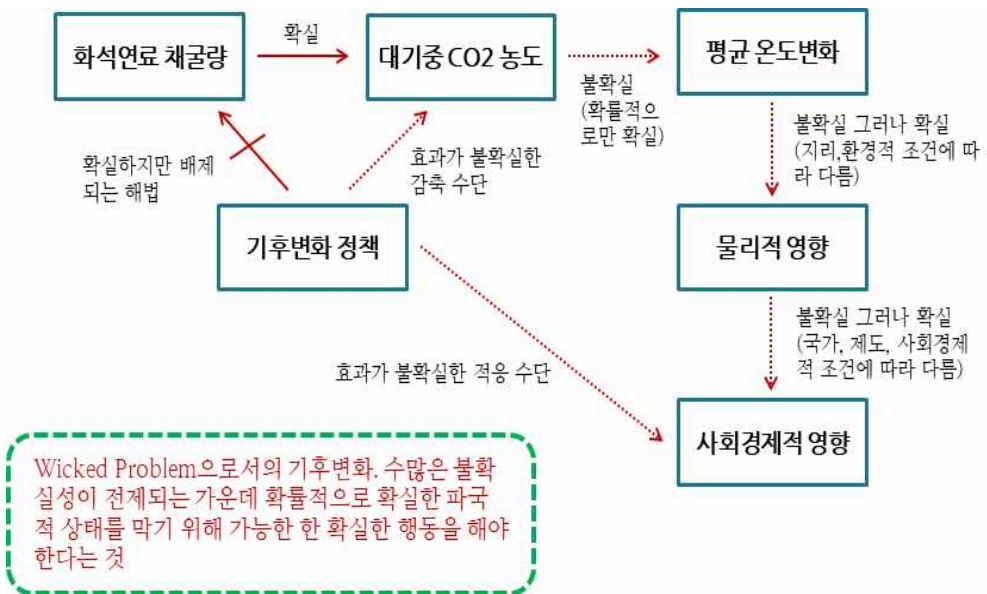
네덜란드의 화학자 파울 크뤼천 등이 제안한 인류세는 이미 과학자 공동체 내부에서 공인된 개념이 되었다. 인류세의 증거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성 동위원소, 오래도록 썩지 않을 플라스틱, 닭과 같은 특정 생물종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 등이 꼽힌다. 그런데 이 개념을 주창하는 과학자들이 강조하는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이며 그것이 지질시대를 통틀어 여섯 번째 대멸종을 불러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10월 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48차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가 발표되었고, 파리협정 이후의 국제 기후체제도 1.5도를 티핑 포인트로 보고 감축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1.5도는 일종의 합의된 한계선이지, 명확한 안전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제까지의 1도 상승만으로도 인간에 의한 생물 대멸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특히 열대 산호초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있다. 다만 특별보고서는 금세기 말까지 온도 상승을 1.5도로 막는다면 2도의 경우에 비해 해수면이 10cm 정도 덜 상승해서 수천만 명의 삶을 지킬 수 있고, 산호 멸종률을 99%에서 30%로 낮

출 수 있으며, 곤충과 동식물 서식지의 파괴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말하자면 피해를 그나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티핑 포인트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기후과학자들의 모델의 한계와 시간적 지체, 그리고 과학 사회의 보수성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게다가 핵발전과 BECCS(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이용) 같이 위험하거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적 수단들을 시나리오에 포함시켰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CC의 보고서와 파리협정부터 각국이 제출한 감축 약속(NDC)은 각국 정부와 기후 운동이 고려할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과 사회 주체들의 노력은 굵뜨고 많은 경우 자기 기만적이다. 이러한 현상을 영국의 언론인 조지 마셜은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는 기후과학의 속성이 갖는 불확실성과 인간의 인지와 심리 작동 구조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제도와 정치가 결부되는 문제다. 사람들은 절멸이나 종말 같은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거대한 문제를 생각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항공산업이나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공식 의제로 삼지 않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지



[그림1]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않다. 기후변화는 원인뿐 아니라 해결 방안도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성격을 갖고 있는 탓에, 조지 마셜은 기후변화가 ‘사악한(wicked)’ 문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한다.(그림1 참고)

2. 탄소 환원주의를 넘어서

그런데 기후위기를 단지 화석연료 채굴과 온실가스 농도에만 주목하는 관점, 즉 ‘탄소 환원주의’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사실 지구온난화의 원리는 매우 간단히 말할 수도 있다. 산업혁명과 함께 온 공장의 증가 그리고 농업혁명과 함께 온 가축(소)의 증가다. 하지만 공장과 소만 간단히 제거해서 온난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장과 소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그것도 자신과 공동체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원거리 판매를 위해 늘어난 생산 방식의 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탄소 순환의 고리가 끊어진 것의 결과들 중 하나다. 단지 탄소 순환의 고리만 끊어진 게 아니라 생태계와 지구 환경을 이루는 많은 연결된 고리가 함께 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구행성적 한계(planetary boundary)’라는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다. 즉 해양의 산성화, 생물 종다양성 상실, 담수 고갈, 오존층 파괴, 질소와 인의 축적 등과 함께 기후변화를 행성적 한계의 한 범주로 다루는 것이다. 사실 이는 정확히 50년 전 로 마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취한 접근이기도 했다. 당시의 저자들은 천연자원의 소모, 환경오염 가중, 농업 생산성의 하락, 인구 정점 같은 변수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루었다. 그들은 여러 모델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대체로 ‘성장의 한계’로 수렴했다. 양적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탱 가능한 균형이 깨지고 견디기 힘든 변화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성장의 한계가 보여주는 그래프는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사회경제와 지구 시스템의 ‘대가속’이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기후위기, 더 넓게 보아 인류세 개념이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삶 전체의 양태에 걸친 것이다. 이 위기의 근원은 무한한 자원 이용과 노동의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 자본주의 경제의 폭발적 성장으로 지목되며, 따라서 위기의 해결 방식도 그러한 남용과 폭력을 저지하거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제시된다. 녹색성장에서 그린뉴딜에 이르는 주류적 정책 대안들이 이를 대표한

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개선과 보완으로 이 자연계와 인간계를 연결하여 펼쳐지는 그리고 장구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가 해소될지는 회의스럽다. “기후 변화가 아닌 체제 변화”라는 구호가 설득력 있는 이유다. 기후위기의 원인을 조망하면서 제시되는 제이슨 무어의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관점이나 조애나 메이시의 ‘재연결 작업’에 공감의 많아지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3. 체제 변화와 탈성장 대안

그렇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할 체제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제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가 온실가스의 발생원과 기상학적 메커니즘을 기술공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대로 대응될 수 없다면, 이렇게 지구 환경과 인간 사이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파괴를 방지하거나 악화시키도록 만든 그 체제를 더 깊고 넓게 살펴보아야 하고, 이 체제를 바꿀 현실의 대안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해법은 기술적으로는 매우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리를 필요로 하지만 이는 기후위기의 원인 자체이기도 한 자본주의 시장 권력과 전 지구적 정치 체제를 다루어야 함을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조프 만과 조엘 웨인라이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념형으로서 ‘기후 리바이어던’, ‘기후 베히모스’, ‘기후 마오’, 그리고 기후 X’라는 가상적 정치체제를 전망한다. 안드레아스 말름은 최근 저서에서 기후위기와 팬데믹이라는 장기 비상사태에서 “생태적 레닌주의”가 요청된다고까지 말한다. 기후 리바이어던과 유사한 조망을 제시하는 사이토 고헤이는 적극적 대안으로서 ‘탈성장 코뮤니즘’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역으로, 자본주의 비판과 극복만으로는 진단과 대안 모두가 부족함을 알려준다. 실제로 지금 세계 여러 곳의 기후정의 운동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해법 모두에서 자원 소비와 경제적 활동 방식과 관련된 구조, 즉 자본주의와 그 한 축인 성장주의에 주목하면서 탈성장 이론과 운동에서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원칙과 방향에서 ‘탈성장’의 전면화 또는 경제의 질서 있는 후퇴와 축소를 통한 관리된 탈성장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 탈성장은 ‘자발적 가난’이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받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아들여지기 십상이지만 이는 적어도 최근의 탈성장 이론가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탈성장의 대표적 이론가인 요르고스 칼리스 등은 이를 상호부조와 돌봄이라는 커먼스가 기본이 되도록 사회를 재구축하고, 경제성장이 아니라 좋은 삶과 형평(성)을 지향하도록 집단적 삶의 목표를 재조정하는 길로 안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세르쥬 라투슈는 탈성장을 하나의 대안이라기 보다는 복수의 대안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이고 창조적인 스펙트럼이며, 정치 및 이론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복합적 대안 프로젝트라고 본다.

현실 정책과 운동에서 탈성장은 주로 GDP 향상을 지표로 하는 바와 같은 경제성장을 상대화하고 다른 질적 지표들을 주류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윤을 위한 생산, 파괴, 폐기, 착취를 줄이고 지구행성적 한계 내에서 삶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기획과 연대를 보장할 경제와 정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제이슨 히켈은 이를 위해 계획된 진부화를 끝내기, 광고 줄이기, 소유권 대신 이용권의 보장, 식품 폐기 없애기, 생태계 파괴 산업 규모 줄이기, 공공재의 탈상품화와 커먼즈의 확장, 부채 탕감과 급진적 풍요, 새로운 화폐, 민주주의의 힘, 정신적 탈식민화와 생태주의 인식에 기반하는 두 번째 과학혁명, 포스트 자본주의의 새로운 윤리학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따지고 보면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생협운동, 생명운동, 사회적경제 운동들이 제안하고 실험해 온 것들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대안과 운동들을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운동으로 새롭게 엮어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요컨대 ‘탈성장’은 담보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논의에 중요한 탈출구를 열어주는 개념이자 운동의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탈성장을 전제로 공공 자원의 투자와 활용을 민주적인 참여 계획과 결합할 경우 더욱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 사실 그린뉴딜 같은 기획도 성장의 맹목적 드라이브를 상대화할 때 본연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나오미 클라인이 우려하는 ‘재난 자본주의’가 아닌 더 넓고 촘촘한 민주주의와 연대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 탈성장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 아닌’, 그리고 장기적이고 항상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사회의 형태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시작할 수 있게 해 준다. 결국 탈성장을 전제로 하는 것은 (국가 수준의) 참여적 계획경제와 (개인과 집단/지역 수준의) 자립과 살림의 확대, 그리고 관계와 과정으로서 연대와 민주주의 심화라는 수단들과 앞뒷면을 이룰 수 있다.



[그림2]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의 구성 요소

기후위기는 몇몇 지구공학 기술은 물론이고, RE100이나 수소경제 로드맵 같은 부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행동 프로그램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기후위기를 체제와 삶의 전환으로 연결하는 담론과 기획들이 주변에서 우후죽순처럼 넘쳐날 때, 비로소 기후변화에 관한 신념과 인식의 공동체(조지 마셜의 표현)도 형성되고 실질적인 변화도 일어날 것이다. 결국 지구 온난화의 티핑 포인트는 존재와 생명을 집단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티핑 포인트가 필요함을 알려 준다. 생명운동에게 기후위기는 새롭지 않지만 처음 만나는 규모와 수위로 우리가 접하게 될, 그리고 오래 경험하게 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담대한 ‘기획’을 요구한다.

공통장(커먼즈) 운동으로서 생명운동의 전환전략

조미성

(모심과살림연구소)

1. 생명운동이 서 있는 자리에 대한 문제제기

장면 하나

한살림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살림에 대해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해야 할 때 어떻게 말하시나요?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생활협동조합’ 정도로 이야기할까요? 한살림은 대중들에게 꽤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에게 한살림이 어떤 곳인지 물으면 “유기농 매장”이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장면 둘

“모심과살림연구소는 한살림의 생명운동, 협동운동을 심화, 확장하기 위한 이론 및 실천 과제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왔으며~” 이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소개글의 일부입니다. 이 소개글만 보자면, 마치 생명운동이 따로 있고 협동운동이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장면들로부터 필자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한살림운동의 지향은 ‘유기농매장’에 그치는 것인가? 그리고 왜 변혁적 전망이 희석되고 유기농 운동으로 축소되었는가? 둘째, 생명운동은 협동운동과는 구분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협동운동은 협동‘조합’운동으로 변질되었는가?

한살림운동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생명생태운동의 특이점을 만들어 냈으며, 국외 협동조합 운동들에 비해 한국 생협운동 진영이 생태적 지향을 가지게 된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또한 한살림이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사회적 가치를 일궈온 배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과문한 필자가 겉으로 보기에 지금도 분명 한살림을 중심으로 모

여든 사람들 다수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과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이들이다. 특히 생태문제나 기후위기에 대해 비록 현실의 어려움이 많아 진척이 느리더라도 한살림은 정말 진정성 있게 대응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살림운동이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면, 초창기에 가졌던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 전환한다는 야심찬 비전을 차근차근 잘 실현하고 있을까? 라는 물음에 상당히 비관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다. 앞서 “생명운동이 제도화의 길을 거쳐 체제내화 되거나 관성적 운동에 함몰되어” 변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류하 선생님의 진단에 동의한다. 다소 도발적으로 과하게 비판하자면, 생명담론의 영성은 애초의 급진성을 잃고 신비주의와 낭만주의, 자문화중심주의로 흐르고 일부에서는 다소간 폐쇄적이거나 개인주의적, 보수적 분위기마저 띠었다고 생각한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물품사업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한살림운동이 생명운동과 생명의 세계관을 다소 축소시켜 왔으며, 생명담론의 높은 추상성이 실제 현장으로 구체화되기 보다 교조와 원칙으로 왜곡되었으며, 구성원들의 좋은 의도와 열정이 이 시대에 맞는 방향성과 전략을 찾지 못해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통장’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한살림운동이 애초에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지점이 부족한지 냉철하게 반성하며 성찰하고,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더 유의미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찾는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2. 현실 생명운동 비판

1) 변혁적 전망의 상실

초기 생명운동 진영은 변혁의 전망이 강했고 매우 거시적인 이야기를 했다. 산업주의와 폭력적 기계문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체제와 문명을 전환해야 한다는 나름의 비전과, 그 길을 걸어갈 생명문화운동 방식을 제시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생명운동의 선구자들은 ‘구라꾼’이었다고 표현하였다.¹⁾ 이 표현은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유토피아적 상상력, 희망이 담긴 거시적 비전을 가졌던 생명운동 선구자들에 대한 존경을 담은 애칭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지금의 우리는 그러한 비전을 현 시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재해석하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 이 비전을 계승하거나 실현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반성을 함께 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한살림에서 여러 현장·지역 운동들을 꾸준히 해 왔지만 그 운동과 사업들에 생명사상이 녹아들어 있지 않고 고유성을 펼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살림이 열심히 하고 있는 탈핵/기후위기/에너지/돌봄 등의 운동이 기존의 영역운동들과 어떤 지점에서 다르고 특이성이 있는지 쉽사리 설명하지 못한다. 한살림 돌봄운동에 대한 연구의 일부에서 “현장의 돌봄사업 실행이 한살림 특유의 사상적 기반과 긴밀하게 융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심층면접자들도 ‘간극’의 존재를 이야기했다.”²⁾는 대목에서는 한살림의 현장 운동들에 생명운동의 세계관이 그리 성공적으로 녹아들어 있지는 못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개벽’이라는 거대한 문명전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생명사상이 왜 전환의 비전을 잃게 되었을까? 그리고 생명담론은 왜 구체적인 실천 현장에 녹아들지 못하고 추상적 선언으로 그치게 되었을까? 그 귀적과 원인을 세세히 짚는 일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필자는 그만한 역량이 되지 못하기에 피상적으로 허술하게 비판할 뿐이다. 다만, 이 귀적에 서구의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가 빠지게 된 개인화, 보수화와 유사한 지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심층생태주의도 당대의 다른 피상적 환경담론을 비판하고 세계관과 사고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며 영성을 통해 ‘개인적 자아’에서 ‘생태적으로 확장된 자아’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생명담론과 접점이 있다. 그러나 생명담론이 심층생태주의보다 진일보했던 지점은 인간 사회의 불평등과 억압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의 삶과 생활문화, 사회적 관계를 협동과 공생의 문화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영성’은 기존 생태담론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키워드지만 양면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구조악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회적

1) “장구라(장일순), 김구라(김지하), 이분들은 다들 구라꾼이야. 지금은 그런 구라꾼이 없어...”(모심과살림연구소 박맹수 전 이사장 좌담회 발언)

2) 홍덕화. (2018) “생태적복지 커먼즈의 이상과 현실: 한살림서울의 돌봄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ECO 22(1).

관계와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지나친 영성은 자칫 심층생태주의가 걸었던 낭만화, 신비화, 개인화의 길을 갈 이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살림운동은 그런 점에서 이탈의 기로에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2) ‘묶임’의 협동조합 vs ‘연음’의 협동운동

한살림 협동에 대한 류하 선생님의 진단을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한살림이 추구하는 ‘협동’은 경제적인 목적이나 조합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중심주의를 뛰어넘어 못 생명의 공생을 추구하는 ‘협동적 생존’”을 의미한다. 한살림은 어떤 협동운동을 하고자 하였는가? 한살림은 “협동을 ‘묶음’(bonding)이 아니라 ‘연음’(bridging)으로 보았고, 연음의 재료인 ‘밥’에 대해 ‘생명’의 가치를 부여했다. 여기서 ‘묶음’이 동질적인 이들 간의 협업이고 이는 ‘묶임’(band)을 지향해 ‘조합’을 낳는다면, ‘연음’은 이질적인 이들 간의 ‘연대’로 ‘연임’(network)을 지향해 ‘공생’을 낳는다.”³⁾ 즉 한살림 운동은 협동‘조합’운동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협동운동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협동의 매개로 생명의 가치를 제시했던 것이다. 만약 “‘밥’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소비하는 사람들 내부의 동질적인 이들 간의 상호부조에 머물러버리면 그저 생산자와 소비자로 존재할 뿐이다. 이 관계성이 전일성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밥’은 ‘생명’의 차원으로 변화하는 것이다.”⁴⁾

한편, 공생과 협동은 생명의 존재방식이며, 존재들 간의 근원적 상호의존성과 연결성에 대한 깨달음은 생명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생명운동은 근본적으로 협동운동을 포괄하며, 생명운동과 협동운동은 나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명운동과 협동운동이 마치 별개인 듯 구분해왔고, 협동운동은 다시 협동‘조합’운동으로 축소되었다. 애초에 한살림 생명운동을 현실세계에서 실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수단으로 택한 것이 협동조합인데, 마치 협동조합이 원래의 목적인 양 변질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협동조합 운동 자체가 거시전략의 시대에서 미시전략의 시대로 질적 변화를 겪으면서 변혁적 전망보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포섭되는 흐름을 겪게 된다.⁵⁾ 협동조

3) 한살림 30년 비전보고서. 56-57p

4) 위의 보고서. 100p

5) 신명호. (2021) “협동조합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에 관하여” 모심과살림 18호.

합운동이 품었던 가치나 이룩해온 역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러한 제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생활협동조합이자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인 한살림도 역시 변혁의 전망을 품기보다는 제도화, 보수화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엮음-묶음의 비유로 돌아가서, 한살림이 현재 서 있는 모습이 '엮음'에 가까운지, '묶음'에 가까운지 묻는다면, 자신있게 원래 지향했던 '엮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구성원들은 그만큼 이질적이고 다양하며, 동시에 열려있고 외부와 확장적으로 연대하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망설이게 될 것이다.

3. 오래된 미래, 공통장 운동

1) 공통장의 의미

최근 대안 담론과 실천을 모색하는 한국의 논자들 사이에서는 공통장(communs)⁶⁾이 주목받고 있다. 공통장을 '오래된 미래'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역사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서양의 전근대 사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숲, 어장, 목장과 같은 '공유지(공동자원)'를 국가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자율적 규칙에 기반하여 관리해왔던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생존과 생업을 공유지에 의탁하고 이로부터 혜택을 얻을 권리를 보장받았다. 공통장은 이러한 자원, 공동체, 규율, 관리방식을 모두 아울러 일컫는 용어이며,⁷⁾ 이는 오랫동안 민중의 삶에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뿌리박힌 삶의 방식이었다.

6) 공통장(the commons)은 한국의 논자들 사이에서 '커먼즈'라는 용어로 더 많이 논의되고 있다. commons의 번역어는 '공동자원', '공유지', '공동재', '공통재' 등 다양한데 이 용어들이 '재화'와 '자연자원'으로 한정되거나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에 존재해왔던 커먼즈의 역동성과 독특함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한국 논자들은 번역하기 보다 그냥 '커먼즈'로 사용한다. 그런데 원어의 함의를 다 포괄하지 못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공통장'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대중적으로 더 소통가능한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천적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한살림운동의 맥락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러 번역어 중 권범철(2019)이 제안한 '공통장'이 commons의 원래 의미를 상대적으로 잘 대표한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7) 사실 공통장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공통장에 대한 해석, 관점, 범위, 실천이 매우 다양하고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볼리어(2015)에 따라 ① 공유된 자원, ② 공동체, ③ 자원을 관리하고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일단의 규칙들을 모두 합한 것, 혹은 라인보우(2012)의 정의대로 "공동체에 속하는 '공동의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렇게 적정한 수준으로 취하고 재생가능하게 관리되어 왔던 공유지들은 자본주의 종획(enclosure)과 축적과정에서 빠르게 파괴되고 해체되거나 상품화되어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통장이 다시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공통장의 작동원리가 자연과 인간을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약탈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극복할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현대적 의미의 다양한 공통장 운동과 실천들이 나타나고 또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통장은 담론이었다기보다 오랫동안 현실 역사에서 실현되어 왔던 운동이기에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개념 짓거나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현실의 다양한 운동들을 범주화 시키고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론적 작업이 뒤따랐다. 그래서 공통장 논의는 자원관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혹은 국가·시장·자본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사회구조에 대한 변혁적 비전을 얼마나 가지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⁸⁾

2) 보통 사람의 실천

흔히들 공통장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한다. “커머닝 없는 커먼즈는 없다.”(라인보우)고 표현한다. 공통장은 공통재(common resources), 공통인(혹은 공동체, commoner), 공통화(commoning)를 모두 포함하며, 이 세 요소가 긴밀히 상호작용하여 구성되는 하나의 체계다.⁹⁾ 한국 독자들에게는 ‘공통장’이라는 용어보다는 ‘공유지’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할텐데, 이 공유지라는 번역어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커먼즈(공통장, commons)를 마치 천연자원인 듯이 말하는 것은 최선의 경우라 해도 뜻을 오도하며 가장 나쁜 경우에는 위험하다. 커먼즈는 활동이며, 자연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사회적 관계를 표현한다.”¹⁰⁾ 더불어 자연자원으로서 공유지라는 용어는 공유하기, 행동하기, 평등의 함의를 제거해버림으로써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의미가 되어 버린다. 공통장은 사용자 공동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원이나 공간을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실천(commoning)을 통해 재구성된

8) 이 구분에 대해서는 정영신(2016), 안새롬(2020) 등 참고.

9) 맞시모 데 안젤리스. 권범철 역. (2019) 『역사의 시작』 갈무리.

10) 피터 라인보우. 정남영 역.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갈무리. 321p

다.¹¹⁾ 공통화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토대는 어떤 특정한 자연(자원)이 우리 모두의 것이며 그것이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깨달음이고 이것이 바로 공통장의 정수다.¹²⁾ 결국 공통장이 공통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공통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이고, 이 점에서 제도나 자원이 아니라 사람에 주목하게 된다.

공통인(commoner)이라는 말은 원래 ‘평민, 일반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통장의 맥락에서 그냥 특정한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공통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공통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통화 활동을 통해 공통장을 만들어내고 구성하는 집합적 주체다. 심지어 최근에는 자원과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공통화 실천을 통해 공통장을 만들어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¹³⁾ ‘진정한’ 의미의 공통인은 생태적일 가능성이 높다. 공통인들은 그들이 속한 자연(자원)을 삶의 기반으로 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기 때문이다.

‘공통인’ 관점의 미덕은 ‘시민’이나 ‘공동체’라는 용어가 포괄하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지점을 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공동체’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약점을 끌어안거나 보완하고 때로는 가부장적이거나 권력관계, 위계적인 논리로 구속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기도 한다.¹⁴⁾ 한편 ‘시민’은 정치적 단어로써 경제적 측면을 통합해 보기 어렵게 만든다. 마치 민주주의와 자발성이 경제 체제에서 시작된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거나, 경제적 관계를 외면하게 만든다. 시민이 경제적 맥락에 놓이면 ‘소비자’가 된다. 반면 공통장은 경제와 정치가 긴밀하게 결부된 공간이며, 시장과 이윤이 아닌 호혜와 적정함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경제를 이야기한다. 즉 공통장이라는 ‘경제적’ 공간과 관계망을 통해 공통인이라는 ‘정치적’ 주체가 형성된다.

공통장 논의와 생명담론이 전환 전략에서 인간 행위자가 차지하는 역할을 보는 관점에는 유사성이 있다. 안젤리스(2019)는 혁명이든 정치권력의 획득을

11)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12) 줄리 리스타우. (2013) “공유자가 되려면.”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이탤릭체는 필자 삽입.

13) 브런치북. “소유보다 향유, 커먼즈 1화- 가진 것을 공유하고 공동의 것을 만들어 나눈다.” <https://brunch.co.kr/@woolf/6>

14) 이 과정은 글의 뒷부분에 언급될 공통장의 ‘부패’와 연결된다.

통한 개혁이든 이들은 정치정당과 대중의 관계를 가르침-배움의 교화 관계로 상정하며, 대중을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로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비판한다. 반면 공통장은 정치적 기획을 폭넓게 보고 권력장악보다는 대중의 자발성과 주체성, 일상을 중요시하는 기획이다. 즉 문제해결의 뿌리를 대중의 생활양식으로 보고, 자본주의의 극복은 결국 우리의 살림살이를 공동생산하는 양식의 극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¹⁵⁾ 이는 생명담론이 문명전환을 위해 단계적으로 상정했던 생활문화운동, 협동적생산 전략과 유사하다.

4. 공통장운동으로서 한살림운동의 전환전략

1) 기후·생태위기 시대, 전환의 비전과 상상력

공통장과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은 공통점과 교차점이 많고 서로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유사하다. 다만, 공통장운동은 실천적 함의를 보다 폭넓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살림을 협동조합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공통장운동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다른 전환의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다른 전환 전략을 세우게 한다. 공통장 관점이 생명운동의 실천에 주는 시사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 공통장 관점은 보다 체제 전환적인 비전을 가지기 쉽게 한다. 물론 공통장이 이상향은 아니다. 여전히 인간중심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현실 세계의 공통장은 자본의 대안이 되기도 하고 자본에 흡수되어 그 협동의 기반을 약탈당하기도 한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장은 제도와 정책보다는 주체들의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체제 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자본/국가와 협력하든 타협하든 대립하든, 공통장 패러다임은 현 시스템의 생산 관계와 소유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 상호간, 인간과 자연 간에 착취가 아닌 공생과 협력의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협동조합이 제도화되거나 변혁의 비전을 갖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시스템에 내재된 사회생태적 불평등이나 지배관계에 주목하지 않음

15) 맞시모 데 안젤리스. (2019) 위의 책.

16) 권범철. (2019) “신자유주의에서 도시 커먼즈의 흡수: 창조도시 전략과 예술행동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29(3)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위계적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본다. 생명운동 역시 불평등을 포착하는 날카로운 시선, 가장 약자를 포용하는 실천, 협동과 공생의 정치적 전략을 잃어버릴 때 전환의 비전을 잃어버리며 보수화되고 개인화될 것이다.

둘째, 공통장 관점은 기후·생태위기에 보다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다. 공통장 관점은 생태적 위기와 경제 시스템 위기, 인간(공동체)의 위기에 모두 주목하게 하고, 생태문제와 사회문제를 긴밀하게 결부된 시스템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된다. 공통장이 주로 자연을 매개로 한다는 점은 협동조합운동에 비해 생명운동과의 접점을 더 크게 만든다. 공통장 담론은 ‘이것(자연)이 누구의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자연)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묻는다. 즉 자연을 국가/시장/개인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간을 자연이라는 체계의 한 부분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로 본다. 또한 일반적인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를 개인/기업/국가로 구분하여 개인의 실천이 먼저냐 국가 정책이 먼저냐를 두고 논쟁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만들고 무력감을 주었다면, 공통장 운동은 이것을 지역과 공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해결가능한 문제로 만든다.

공통장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은 시장가치의 극대화가 아니라 공동체의 욕구와 생태적 안정성이다.¹⁷⁾ 공유지는 평민들이 생계와 생존을 의탁하는 기반이며, 공통인들은 장기적 생존의 필요성 때문에 충분함의 윤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자원을 보호하며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정도만 취한다. 그래서 이 지점은 탈성장 담론 및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2) ‘연음’의 연대

인류학자인 히켈은 세계 곳곳에서 다수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한다.¹⁸⁾ 그것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시애틀 추장의 편지>와도 비슷한 내용이다. 자연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이 자연에 속하며, 모든 생명들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고 공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자연과 인간에 대해 가졌던 관점은 생명담론과 놀라운 정도의 유사성을 보인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접점없이 살아온 여러 토착 세계들에서 이러

17) 데이비드 볼리어. 배수현 역.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18) 제이슨 히켈. 김현우, 민정희 역. (2021) 『적을수록 풍요롭다』 창비.

한 유사성이 발견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 어쩌면 산업화와 자본주의 이전 토착 세계들의 세계관이 (상품화되고 왜곡되기 전) 원래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인간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기적이거나 합리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오랫동안 자연 속에서 비인간 타자들을 존중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그리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왔으며, 그러한 삶에서 더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한살림 생명담론은 분명 훌륭한 사상체계지만, 독보적으로 우월하거나 유일한 것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 오랫동안 유사한 생명담론들이 있어왔고, 이 토착생태담론들은 현 시대에도 자본의 폭력과 파괴에 맞서는 일종의 대안근대성¹⁹⁾으로 작동하고 있다. 서구 근대적 보편성의 단일한 세계(universe)에서 토착성, 특이성, 다양성의 ‘복수세계’(pluriverse)로 나가는 맥락 위에 생명담론도 역시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생명세계의 존재방식이 다양성과 공존하는 상호의존성이듯, ‘복수세계’는 각 토착세계들의 특수성과 개성을 각자의 맥락에서 최대한 발휘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 한살림운동 또한 유일성의 신화에서 벗어나, 죽음과 폭력의 문명에 함께 맞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일구어 나가는 동지들을 적극적으로 재발견하고 전 지구적으로 연대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민중교역은 이 과정에서 상당히 가능성 높은 연대전략(시혜가 아닌)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살림 사람들은 한살림이라는 공통장에서 공통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한살림은 협동의 방식으로 ‘엮음’을 선택함으로써 무리나 집단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공동체를 통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일궈가고자 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혹여 한살림이 동질성을 가진 ‘묶음’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공통장은 이상향이 아님을 언급했는데, 공통장은 ‘부패’하거나 ‘왜곡’되기도 한다.²⁰⁾ 공통장이 부패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가족, 기업, 민족인데,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정체성과 동일성을 강요하기 때문이다.²¹⁾ 정체성

19) ‘대안근대성’에 대해서는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정남영·윤영광 역, (2014) 『공통체』 사월의책. 참고.

20) 여기서 공통장의 ‘부패’나 ‘왜곡’이라는 용어는 일상적 용법과는 다소 다르다. ‘부패’는 하트와 네그리(2014)에 등장하는 용어로, 공통장에 배제나 통제가 작동하여 ‘함께 사유하고 행동하는 공동의 힘이 감소하고 네트워크가 붕괴될 때’를 의미한다. ‘왜곡’은 안젤리스(2019)의 표현으로, 관료주의와 관리주의에 사로잡혀 있거나 다른 공통장과 신자유주의적으로 경쟁하는 공통장의 상태를 의미한다. 부패와 왜곡에 대한 개괄적 논의에 대해서는 (안새롬, 2020) 참고.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이 동일성으로 둔갑하여 다양성을 억압하고 불평등에 눈감고 소수자를 차별하며 이방인을 배척하고 폐쇄적으로 변하는 순간, 공통장은 부패한다. 그렇다면 한살림은 충분히 다양하며 안으로 평등하고 밖으로 열려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어쩌면 한살림은 이미 부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변화와 학습이 생명의 존재방식이듯,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실천을 통해 부딪히고 구성되는 것이 생명운동이 아닐까. 역사는 혁명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공동으로 실천’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²²⁾

21) 네그리·하트(2014) 위의 책.

22) 맞시모 데 안젤리스(2019) 위의 책.

전환기 생명운동의 방향과 전략

정규호

(한살림연합)

0. 시작하며

- '대전환기, 생명운동의 방향 및 역할 찾기'와 '생명운동에 대한 전환의 기획'이 모두 필요한 때. (생명운동 40년(82년 원주보고서), 모심과살림연구소 20년, 생명사상의 정초를 놓은 김지하 선생 돌아가신 해)
- 물음들 : 생명운동 40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운동을 인식·공감하고 있나? 다양한 생명운동 영역들¹⁾을 관통하는 공통의 정체성은? 생명운동은 현재와 미래에 유의미 한가?

1. '생명'과 '생명운동'

- '생명' 이해의 범주

- 개체로서 '생명' : 물질대사, 생식, 유전, 적응, 항상성, 진화 등을 통한 '개체 유지'와 '종족보존'이 기본 특성
- 전체로서 '생명' : 개체생명들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총체적 자기조절 기능을 하는 생물권 단위(가이아, 공생진화설 등)

- 생명운동에서 '생명'은?

- 생명은 '죽음'을 품고 있기에 귀하고 소중. 죽음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일부.²⁾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은 그 자체가 반생명적. 우리가 문제

1) 생명운동의 범주로 생명농업운동, 생명공동체운동, 생명협동운동, 생명사상운동, 생명문화운동, 생명교육운동, 생명정치운동, 생명평화운동, 생명기술운동, 생명윤리운동, 생명안전운동 등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

2) 개체 생명들은 외부로부터 다른 생명들을 취하고, 내부에서는 수많은 세포들의 생성과 사

삼아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임'

- **생명운동은 곧 살림운동**

- 생명운동의 지향은 죽음의 세상을 살림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³⁾
- 생명운동은 생명을 소외·단절·파괴시키는 '죽임'으로부터 생명을 지극한 사랑으로 지키고 살려내고, 스스로 생명의 본성과 원리에 맞게 살아가도록 힘쓰며(자기조직화), 개체중심 생존주의를 넘어 함께 사는 길을 만들어가는(자기초월) 목적의식적 노력

- **생명운동 원리와 유형**

- 생명살림의 원리
 - 유기적 관계성 : 상호 연결, 상호 의존적 관계에 대한 자각, 모순에 대한 초월적 연결과 통합
 - 창조적 역동성 : 닫혀 있으면서 열린 구조를 통한 순환과 역동적 평형, 자기조직화와 자기초월을 통한 새로운 차원으로의 확장
- 생명운동 유형
 - 생명보존(보호) 운동 : 어떤 이유로도 수단화, 도구화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노력(생존권·생명권 보호 등)
 - 생명가치 실현 운동 : 생명의 가치(활력·신명·협동·상생)와 원리를 건강하게 실현해 가는 노력(생명교육, 생명공동체, 생명협동, 생명문화운동 등)

2. 생명운동 흐름과 현실 진단

-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등장한 한국 생명운동**

- 60-7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80년대에 생명운동으로 '노선' 전환
 - 인간소외, 공동체해체, 생태계파괴를 일으키는 죽음의 문명 비판
 - 계급투쟁, 정치투쟁을 넘어 자립과 공생, 상생의 사회 지향

멸의 반복 과정을 통해 살아간다.

3) 우리나라 생명운동의 가치와 사상을 종합해 담은 <한살림선언>의 해설판 제목도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다.

- 삼보일배, 생명평화순례 등 생명운동의 새로운 운동양식 등장
- **생명위기 확산과 생명운동의 확장**
 - 각종 개발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생태계 보호 활동 : 지리산, 천성산, 설악산, 새만금, 4대강 살리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 생명가치에 대한 사회적 자각 : 세월호 참사, 대규모 가축 살처분(구제역·조류독감), 사형제·자살·빈곤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 지구적 생명위기에 대한 인식 : 기후위기, 전쟁, 테러, 기아, 난민, 후쿠시마 참사, 코로나 팬데믹 등
- **생명운동에 대한 성찰과 물음**
 - 생명운동의 관성화, 보수화 경향에 대한 성찰
 - “돈 보다 생명”에 대한 사회적 자각에도 불구하고, 전환적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실⁴⁾
 - 생명위기 한편에서, 생존주의 확산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욕구를 자양분 삼아 비주류 영역에서의 자기만족적 활동에 머무르는 경향
 - 생명운동이 지향하는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를 채워줄 구체적 실천양식 및 모델의 부재
 - ‘생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생명운동의 재설정 요구
 - 인간/비인간 존재의 경계 모호 : 인공관절, 인공심장, 동물 장기 교체 등
 - 새로운 생명조작 기술의 확대 적용 : GMO, 유전자가위, 합성생물학 등
 - 융합생명 시대⁵⁾의 등장 : 인공지능, 로봇틱스, 나노기술 등
 - 전환의 키워드 ‘एको’, ‘디지털’과 생명운동과의 접점 모색 필요⁶⁾

4) 무성한 ‘전환’ 이야기에다 구체적 방법과 주체는 모호한 것이 지금 현실. 오히려 예산 배분과 기술투자로 신성장 영역을 만들어내는 국정의 주요 키워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

5) 이병한은 이것을 ‘태어난 것들’과 ‘만들어진 것들’이 합류하는 시대로 말하고 있다.

6) 일찍이 감지하는 2004 세계생명문화포럼 폐회식 강연에서 시대적 화두로 ‘एको디지털’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 불교평론(2008년 12월 7일자)에서도 디지털과 에코를 우리 시대의 화두로 언급하였다. 최근 에코와 지디털은 국정 과제의 주요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3. 전환적 생명운동에 대한 모색

- '대전환기'에 대한 인식

- 생명위기의 다양한 징후들
 - 인간 활동이 생명계(지질, 대기,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인류세' 시대
 -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게'를 외쳐온 성장 시대 신화의 균열과 붕괴
 - 사활을 건 생존 경쟁과 속도에 지친 사람들(피로·탈진사회), 시간 빈곤과 관계 결핍의 확대(휘발성·매몰성 사회)
 - 생명을 낳고 기르고 살아가는 일 자체가 버거운 현실(낮은 출산율, 높은 자살율, 최장 노동시간, 낮은 행복감)
- 총체적 전환(개인 생활양식, 사회시스템, 문명 전반)이 필요한 때
 - 현실을 지배하는 가치와 시스템의 '성공'이 만들어 낸 역설적 결과가 위기의 핵심
- 현 인류가 새로운 단계로 차원변화를 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시험대에 선 상황
 - 각자도생의 생존경쟁으로 자기파괴적 선택을 할 것인가? 창조적 대안의 영역으로 새로운 차원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 전환적 생명운동을 위하여

-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지 않고, '중독'과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할 때
 - 생태학적 한계, 기후위기 연쇄반응과 가속화로 임계상황을 넘어선 비가역적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단기적, 표피적 처방은 한계
 - 전환은 주류 시스템이 만들어 낸 '경로의존성'과 성찰 능력을 마비(영적 치매) 시키는 '중독'?(물질중독, 성장중독, 탄소중독 등)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가능
 - 지배적인 가치에 대한 불신과 시스템의 균열이 일어나는 현 상황은

7) 장기적으로 치러야할 비용보다 단기적 이익을 우선함으로써 자기조절과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으로 전환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

- 전환적 생명운동을 위한 물음
 - 과연 생명운동은 기존의 실천 양식(단순·소박·느린 삶, 나부터 실천,⁸⁾ 자율·자립·자치 강조)으로 중독과 경로의존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 지금의 생명운동은 총체적 생명위기 상황에서 각론적 대응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 과감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
 - '자신의 기득권·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력',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는 통찰력',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용기와 도전 정신' 필요

4. 생명운동의 전환 전략 모색

- 전환의 방향

- 생명운동의 존재의 의미는 '죽임'의 사회를 '생명살림'의 사회로 바꿔내는 것
 - 생명위기는 확대·심화되고, 낡은 이념(진보, 보수 등)에 편승한 정치권·운동권의 담론과 전략은 수명을 다하고 있으나, 생명살림의 대안(비전·주체·영역)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 이미 우리사회 저변에 흐르고 있는 '생명살림'에 대한 열망을 찾아서, 생명운동의 '심화'(내면화, 생활화)와 '확장'(대중화, 지역화)으로 연결할 필요
 -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 민심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돈 보다 생명", "새로운 나라 만들기". (촛불은 정권교체 차원을 넘어서는 것)
 - 시민사회의 '성숙'(成熟), 시장의 '성화'(聖化), 국가 '대개조'(大改造)를 통한 생명살림의 나라를 만들기의 구체적 비전과 전략이 필요
- 생명살림 사회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상생의 원리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작동)되도록 하는 것
 -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에 대한 열망이 협동과 공생의 가치와 시스템

8)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을 통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되어 서로살림(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필요

- 생명 존재의 기본 속성인 자기(自利)를 이타(利他)로 연결시켜내기 위한 '대중성'과 '전환성'을 갖춘 대안 영역의 구체화와 확장이 필요. (탈성장론 등 '벗어나기'(脫) 담론으로는 한계)

- 생명운동의 전환의 과제

- 중독과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식과 시스템의 동시적 전환 필요
 - 인식의 전환 : 개체생명 중심 생존주의를 넘어, 상호의존적·유기적 관계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시·공간·존재론적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장(9)(here-now-ego complex 벗어나기) 함으로써, '관점'과 '관계', '실천양식'의 전환의 토대 마련
 - 시스템 전환 : 문제의 확대 재생산 및 과거로의 퇴행 방지, 지속적인 실천과 시행착오 최소화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 자체의 재설계·재구축 필요 (공공·시장·사회적·살림 경제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경제시스템과 대의제·직접·풀뿌리·속의 민주주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정치시스템 등)
- 생명운동의 전환적 역량 강화
 - 생명운동의 운동성(정치성) 강화 : '나로부터 실천'과 '체제 및 문명 전환'을 연결시키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이행 전략 제시, 욕망에 기반한 '권리의 정치'를 생명살림을 위한 '책임의 정치'로 바꿔내기 위한 사회적 발언권 확대, 생명운동에 우호적인 정치·사회적 환경 조성 등
 - 생명운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 생명운동 인프라 구축(신뢰기반 확대, 대안 실험의 거점 공간 조성, 물적토대 마련 등), 생명운동 주체 발굴·육성과 저변 확대, 생명운동 상호간 소통·교류·네트워크 활성화 등
 - 생명운동의 보편성 획득 : 생명운동의 확장된 비전과 역할을 담은 담론의 생산과 확산(메시지 발신과 매체 전략 등), 근본적 인식과 현실적 실천을 연결시켜 줄 생활실천 양식과 모델 만들기, 구체적 삶과 연결된 생명운동의 과제 발굴 등

9) 지질학적 연대기 분석(온실가스 농도와 기상변동 상관성), 생태학적 조사와 모델링, 푸른 별 지구 위성사진(우주선 지구호), 글로벌 실시간 소통채널 확대 등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도 인식을 시공간적으로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생명운동의 전환 전략

· 문턱 낮추기

- 추격형 개발국가의 유산, 분단국가 갈등 구조, 사회·경제·공간적 양극화 확대와 자립 및 합의기반 취약 등으로 전환 비용이 매우 높고 대안 영역은 취약한 것이 당연한 현실
- 전환에 대한 '저항'과 '비용' 줄이기가 매우 중요 : 생명살림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함께 전환으로의 이행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과 기회 제공, 전환 이행을 가로막는 제도 및 시스템의 장애요인 해소 등

· 물꼬 트기

- 전환은 새로운 차원을 여는 불연속적 과정으로 임계점을 넘어서기가 매우 중요. 강한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환 기획과 대안 영역 만들기(전환 실험과 거점)가 필요
- 전환 이행을 위한 '초기' 단계에 자원과 에너지의 집중 집중이 중요. 일단 흐름이 형성되면 이후 과정은 초기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음('탄소중립 2050' 성패도 향후 10년, 구체적으로 2-3년이 중요)
- 초창기 '전환 기획 및 제안 역할자'(창조적 소수자)¹⁰⁾와 적극적 지지자(혁신, 선각 수용자) 역할이 매우 중요¹¹⁾

· 꺾어 내기

- 총체적 생명위기에 대한 부분적, 개별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
- 생명살림을 위한 운동의 목표·방향·방식에 대한 공감대 확대
- 공간·시간·심리·제도적 장벽 넘어서기, 고정관념·기득권 내려놓기, 현장 밀착 맞춤형 접근, 제한된 역량(자원, 경험, 지혜)의 효과적 결집 등
- 초경계, 초연결 시대의 확장된 소통과 연대의 가능성 적극 활용

10) 안으로는 내면의 평화를, 밖으로는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혁명가 '요기사르'(yogissar), 영성적 혁명가이자 행동하는 지성인 '사드비프라'(Sad-Vipra), 동학의 '신인간'(新人間)처럼, 생명운동에 창조적 역할자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11) 혁신 수용단계: 대가 없이 적극 참여하는 혁신 수용자(2.5%) → 의미와 가치를 알고 기여 참여하는 선각 수용자(13.5%) → (과도기적 정체상태) → 실용적 입장에서 비용과 효과 평가 후 참여하는 전기 다수 수용자(34%) → 대세에 따르는 후기 다수수용자(34%) → 변화에 거부감을 가지는 지각 수용자(16%)

5. 한살림 생명운동에 대하여

- '한살림' 말 속에 담긴 생명운동의 핵심 원리

- '한'에 담긴 세 가지 특징 : 활(活), 개(開), 통(通)¹²⁾
 - '활'(活) : 하나이면서 많음이요, 중심으로 모이기가 하면 크게 퍼지기도 하는 힘차고 빠른 역동
 - '개'(開) : 막힘·대립·고립을 돌파하고 새로운 지평과 차원을 여는 것
 - '통'(通) : 모든 것을 통하게 하여 함께 서로 살리는 상생(相生)
- '살림'의 세 가지 의미 : '살리다', '살다', '사르다'
 - 살리다 : 죽음의 위기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살려내는 것
 - 살다 : 생명의 본성(생명성, 신명)을 자유로이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
 - 사르다 : 스스로를 기꺼이 내어놓고 함께 나누며 서로를 살리는 것 (한살림 새로운 30년 비전 "세상의 밥이 되는 한살림")

- 한살림 생명운동의 과제

- '생명의 세계관' 확립
 - 각자도생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상호의존적 관계로 존재함'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대가 중요
 - 한살림의 세계관('밥이 하늘이다',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생산과 소비는 하나' 등)은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
- '새로운 생활양식' 창조
 - 경쟁·소외·지배·배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현실에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상생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필요
 - 한살림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호혜의 관계 방식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 기반 협동운동을 선택
 - 생산-소비의 경제적 상호책임 관계를 확장해서 생활밀착 솔루션 제공과 함께 생산자, 소비자, 이웃이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의 공간'을 만들

12) 김태창 구술, 이케모토 케이코 기록, 조성환 옮김, 2017, <공공철학 대화>,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793-794쪽.

어나갈 필요

- '한살림 세상' 실현
 - 한살림운동의 총화된 모습으로서 한살림세상(도농상생 공동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화 해 나갈 필요. (직거래 사업시스템을 넘어 '지역', '매장', '농장'에 기반한 새로운 실험과 공간전략 제시 등)
 - 농업, 먹을거리, 에너지, 환경, 복지·돌봄·공제, 금융,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명살림의 자급기반 확대.¹³⁾
 - '세상의 밥이되는 한살림'으로 생명살림 세상을 위한 선한 영향력 전달. (기후위기 대응, 식량·에너지 자급, 재난에 대한 긴급구호 활동 등)
- '밥상살림', '농업살림'을 기본으로 하면서, '마음살림', '지역살림', '지구살림'으로 생명살림 운동 영역을 확장·심화시켜 나갈

13) 한살림 미래비전에서는 2FTC(Food, Finance, Energy, Environment, Care, Culture)를 자급기반 확대 영역으로 제시한 바 있다.

3부

종합토론

- 시대의 전환, 생명운동의
전환을 위하여

○ 메모

전환의 시대, 생명운동의 길찾기

○ 메모